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20일)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수행 챌린지’ 확산…‘新신행 문화’ 자리매김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 어플 제작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전개 중
“평안의 씨앗을 뿌려줘 감사” 호응
3천배, 사경 등 ‘수행 챌린지’ 확산
동안거 맞아 ‘온라인 정진’ 이어져
‘느슨한 연대’ 라이프 트렌드 영향
“문화 정착에 종단 · 사찰 관심 필요”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현재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수행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몰이 중이다. 이 같은 온라인 수행 챌린지가 새로운 수행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추진하는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이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 대중화와 국민 마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한 ‘하루 5분 선명상’의 실천방안으로 조계종 미래본부가 제작한 ‘선명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선명상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명상’은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진우 스님·금강 스님) △소리명상·청소년을 위한 행복 선명상(미래본부)으로 구성돼 있다. 동참자들은 오늘의 명상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5분간 선명상을 한다. 명상이 끝나면 인증 스탬프를 받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기를 남기게 된다.

커뮤니티 게시판의 반응도 뜨겁다. 선명상 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아이디 ‘일여’는 “아침 출근길, 점심시간, 자기 전 하루 3번씩 선명상으로 고요함에 빠진다”면서 “지금 여기서 나 자신을 관찰하고 일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편안한 시간, 온전한 하루를 갖게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아이디 ‘bappp02’는 선명상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선명상 실참에 나섰다. 그는 “매일 가족들과 잠들기 전에 5분 선명상 어플을 이용해 명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명상하면 명상 종이에 포도알을 하나씩 칠하게 했다. 벌써 30개를 다 채워 두 번째 포도알 명상 종이를 만들었다. 가족의 마음에 평안의 씨앗을 뿌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Justbe 3000배 club’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 동안의 3000배 절 수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2023년 11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51명의 절 수행자들이 3000배 수행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스스로 수행할 절 횟수를 정한 후 단톡방 혹은 SNS에 인증한다. 동참자들의 후기는 단순히 절 횟수를 기록하는 사람부터 그날 하루에 느꼈던 수행 후기를 남기는 이까지 다양하다.

‘Justbe 3000배 club’를 기획, 운영하는 송산하(홍대선원 스태프, 28) 씨는 “수행하고 언제든 온라인으로 인증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앞으로도 3000배 클럽 도반들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안거를 맞아 이뤄지는 수행 챌린지들도 관심을 모은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충훈)는 동안거를 맞아 11월 15일부터 ‘조계사청년회 아침명상 시즌3’를 진행 중이다. 동안거 동안 아침에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아침명상 시즌3’는 30명의 청년 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오직 ‘목소리’로만 소통한다. 아침 6시부터 30분간 카카오톡 오픈톡방 보이스룸에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30분 동안 호흡·자애명상 등을 실참한다. 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마인드셋(Mindset)’ 시간과 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Q&A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가이드로 나서는 이란희 조계사 청년회 참선수행부원은 “이른 아침 수행하는 도반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직 목소리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도반들이 오롯이 개인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광미디어(대표 류지호)도 11월 15일 네이버 밴드에서 ‘동안거 사경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댓글로만 확인된 동참자는 92명(11월 14일 기준). 실시간으로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지는 중이다. 사경은 초기불교 석학 이중표 교수가 세계 최초로 〈니까야〉와 〈아함경〉을 한 권으로 엮어낸 〈불경〉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원장 지운 스님)은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ZOOM)으로 ‘지운 스님과 함께하는 10분 명상 챌린지’를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지운 스님이 직접 명상 강의를 진행하면, 동참자들은 익힌 명상법을 매일 네이버 밴드에 온라인으로 모여 10분씩 실천한다.

온라인 수행 챌린지의 확산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느슨한 연대(Weak Ties)’라는 라이프 트렌드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느슨한 연대’는 서로 연결됐으나 너무 밀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연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온라인 수행 챌린지 역시 시간과 장소, 관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느슨한 연대감을 추구해 새로운 신행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요즘은 단순한 관람보다 체험이 선호되는 시대다. 이에 수행 챌린지가 직접 참여하고 인증하는 ‘놀이문화’로 승화돼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기존의 딱딱한 종교의 틀보다 부담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러한 온라인 수행 챌린지 문화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후속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예하 禪藝, 하나 하나 감동”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전시회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 COSMOS’를 관람했다. 성파 대종사와 함께 대종사가 40여년간 작업한 결과물 가운데 1980년대에 선보였던 금니사경에서부터 옻칠 회화, 최근에 만든 설치 작업물 등 120여 점을 살핀 진우 스님은 특히 대형 한지에 안료와 옻을 섞은 물감을 흘려 붓고 바람에 말려 제작한 작품들에 관심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인간의 모든 근본적 철학이 담긴 작품 하나 하나가 감동적”이라며 “종정 스님의 예술 세계, 특히 옻 문화를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8일부터 열린 이번 전시는 11월 17일 마무리됐다. **글=임은호 기자 · 사진=조계종 홍보국 제공**

전국 100여 선원들 갑진년 동안거 결제

11월 15일부터 3개월 간
성파 대종사 결제 법어
“일념 정진해 화두 타파 ”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000여 명의 수좌가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전국 총림과 선원은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안거 결제일 11월 15일(음 10.15)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갑진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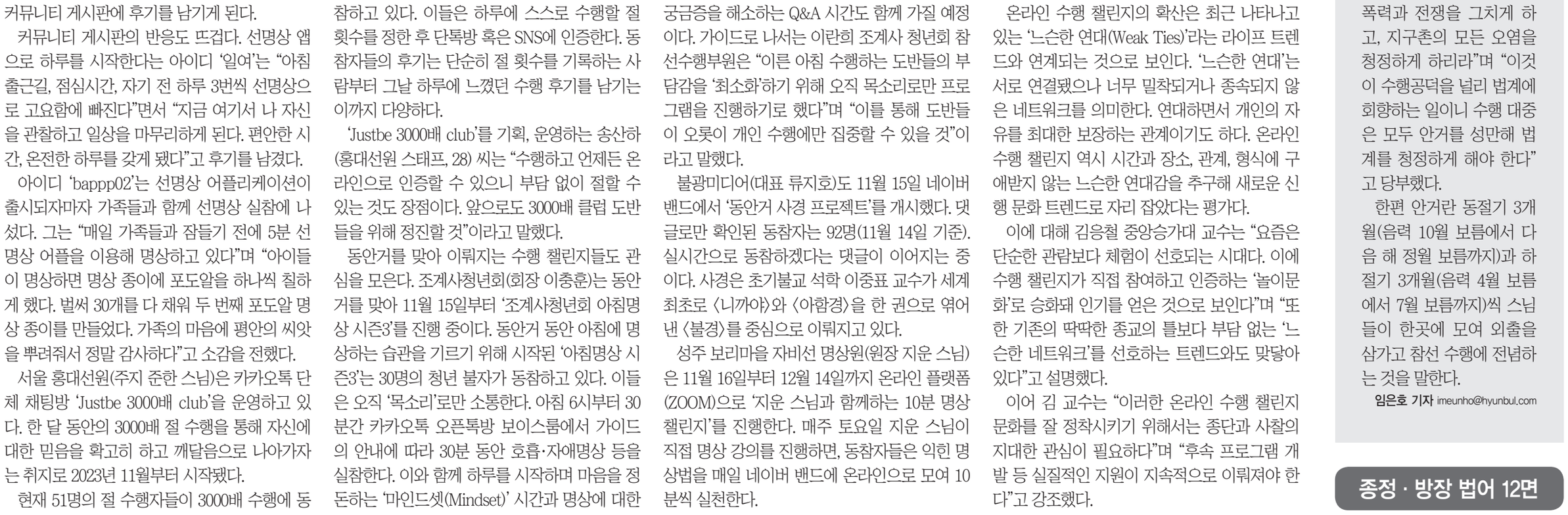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는 결제법어에서 “결계가 원만하고 대중이 육화(六和)로 화합하며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모여 정진하니 최상의 수행대중이 이루어졌다”면서 “여기에 수행을 돕는 단월의 정성이 더하니 삼동결제를 장애 없이 원만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행 대중의 정진 향기는 세간의 모든 폭력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지구촌의 모든 오염을 청정하게 하리라”며 “이것이 수행공덕을 널리 법계에 회향하는 일이니 수행 대중은 모두 안거를 성만해 법계를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거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정 · 방장 법어 12면



종사·명덕 92명…“종단 발전 위해 용맹정진”

조계종 법계위, 11월 12일 품서식
종사 63명 · 명덕 29명 법계 품수
승랍 30년 이상…‘21조 가사’ 받아
대덕 69명 · 혜덕 36명도 법계 품수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거행한 법계품서식에서 종사 63명, 명덕 29명이 가사를 받고 “인천의 사표로 중생구제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단의 종사·명덕 법계를 품수받은 스님들이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는 11월 12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계를 받은 스님은 종사(비구) 63명, 명덕(비구니) 29명 등 총 92명으로 승납 30년 이상 종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세속을 등지고 삭발염의하며 세웠던 대오견성으로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겠다는 초발심의 간절한 서원은 얼마나 성취했는지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면서 “출가할 때 간절한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모두가 교단의 중추로서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교화의 덕목을 갖춘 종단 발전의 역군이 되주길 기대했다. 스님은 “종사, 명덕 법계는 종단의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임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이자, 출가해 지나온 시간에서 쌓은 다양한 수행과 경험을 종도들과 함께 나눠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중요한 소임을 부여받는 자리”라면서 “높은 지위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삭발염의로 발심 출가할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세워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된 자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37대 집행부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하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현장에서 함께 하고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며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의 든든한 의저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품서식은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와 법계위원스님들이 증명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법계증과 종사·명덕 법계를 상징하는 21조 가사를 내렸다. 품수자를 대표해 종사 법계증은 가섭 스님이, 명덕 법계증은 여학 스님이 받았다. 21조 가사는 설도 스님·태경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은 스님들은 “불조 혜명을 바르게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면서 “인천의 사표로써의 위의를 항상 갖추고 중생구제의 원력에 더욱 힘쓰겠다.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에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대덕(비구) 69명, 혜덕(비구니) 36명 등 총 152명 스님에 대한 법계 품서식도 함께 봉행했다. 법계증은 운묵 스님과 도연 스님이, 가사는 석두 스님과 돈오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법계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는 1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68(2024)년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묵(비구)·도연(비구니)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여러분은 출가자로 20여 년을 보내면서 거짓과 진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지금까지 어른스님의 그림자를 붙잡고 왔다면, 이젠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진신의 그림자가 되어 줘야 할 때”라며 “후배들에게 참다운 수행자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 퇴설당 입실

11월 11일 입실…“총림 화합” 당부



해인총림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총림 방장실인 퇴설당에 입실했다.

대원 대종사는 11월 11일 해인총림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퇴설당에 입실하며, 총림 화합을 대중에게 당부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해인총림 동당 세민 대종사,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학성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대원 대종사는 대적광전, 법보전, 독성각, 대비로전, 조사전 등 경내 전각들을 참배하고 퇴설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총림 대중스님들의 삼배를 받고 퇴설당에 입실한 대원 대종사는 화합과 정진을 총림 대중에게 당부하고 “앞으로 총림대중들이 잘 화합해 해인총림이 세계 만방에 빛날 수 있도록 수행정진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해인총림 산중총회에서 방장 후보로 추천됐으며, 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신중일 기자

“십선계를 능히 가지고 지키겠나이다”

진각종, 수계관정불사 봉행
진언행자 75명 새롭게 탄생



진언행자 75명이 보살십선계를 받고 신교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1월 12일 서울 탑주심인당에 삼매야계단을 개설하고 ‘진기 78(2024)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마민녕(현호·탑주심인당) 신교도 등 75명의 수계자들이 보살십선계를 수지했다.〈사진〉

교무부장 수각 정사의 습의불사에 이어 봉행된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로부터 금강선을, 전계아사리 관천 정사로부터 금강수를,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로부터 계첩을 받고 십선계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통리원장)는 설계단문을 통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 반드시 먼저 계를 가지지 않으면 일체의 선한 공덕을 얻지 못하며 청정한 계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설하셨다”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 모든 진언행자들이 환희하여 계를 받아 이를 복전으로 삼고 무량한 공덕 받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교육원장)는 계상성취찬탄을 통해 “계를 받았으니 법보를 만나 부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마땅히 조심하고 가져라”면서 “계를 가지고 지키는 공덕은 더욱 무량하니 여기서 일어나는 공덕을 부모와 조상과 사대은혜와 법계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전했다.

전계아사리 관천 정사(인의회 의원)는 법어를 통해 “진언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정계를 받으니 계행은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도다. 금생에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 항상 선지식의 친근함을 얻어 부처님과 법과 그 스승을 깊이 믿으니 능히 모든 공덕 구족하리로다”고 말했다.

수계자를 대표해 마민녕(현호) 신교도는 입지게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키겠다”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불사에서는 제3회 통리원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세종심인당 신교도 안상동(인정) 각자가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인정 각자는 “세종심인당 금강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내게 됐다”면서 “불명을 받으니 진정한 진언행자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5주년 상월결사 “부처님 법 전합시다” 다짐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서
108배로 상월 정신 되새겨
조계사 등 100여 명 동참해


상월결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며 대중들은 위례 상월선원서 108배를 올리며 포교와 전법의지를 되새겼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中)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을 위해 시작한 ‘상월결사’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이날 모인 100여 상월결사 대중들은 108배를 올리며 포교와 전법의 의지를 되새겼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에서 ‘상월결사 5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월결사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삼아 시작했다. 2019년 11월 11일, 동안거 동안 9명의 스님이 천막법당에서 정진한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생명 존중과 평화를 기원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평화방생순례’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대학생 전법에 달렸다”라는 자승 대종사의 뜻에 따라 젊은 층 포교에 진력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영원한 상월결사의 이사장이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형상은 이제 없지만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자’라는 대종사께서 남기신 뜻을 잇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자승 대종사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스님은 “대종사께서 늘 강조했던 대학생, 청년포교를 위해 더더욱 정진하겠다. 그것이 대종사께서 남긴 마지막 숙제를 잘 풀어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봉은사에서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김민재 기자

大韓佛教曹溪宗 與山堂 慧炬大宗師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4일 입적하신 與山堂 慧炬大宗師의 영결 · 다비식을 11월 8일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대중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하겠습니다.

與山堂 慧炬大宗師 追慕齋 案內

· 초재	불기2568년(2024)	11월 10일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2-445-8486
· 2 재	불기2568년(2024)	11월 17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3 재	불기2568년(2024)	11월 24일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2-445-8486
· 4 재	불기2568년(2024)	12월 1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5 재	불기2568년(2024)	12월 8일	10시30분	광명선원	043-877-5000
· 6 재	불기2568년(2024)	12월 15일	10시	금강선원	02-445-8484
· 7 재	불기2568년(2024)	12월 22일	10시	제4교구본사 월정사	033-339-6800

大韓佛教曹溪宗 第4教區本寺 葬儀委員會 · 門徒一同

혜거 대종사, 오대산으로 돌아가다

임은호 · 정현선 · 김내영 · 김가령 기자



11월 8일 월정사 연화대에서 엄수된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다비식. 700여 대중이 참석,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11월 8일, 탄허박물관서 영결식
오후 1시 월정사 연화대서 다비식
700여 명 사부대중 마지막 배웅
"명상 세계화 초석 다진 스승"
막재 12월 22일 10시 월정사서

"혜거 스님…혜거 스님…속환사바 하소서."

11월 8일 오후 12시 오대산 월정사에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법구를 모신 운구 차량이 등장하자 불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다. 차량이 다가올수록 묵묵한 침묵에 잠겼고, 몇몇 불자는 혜거 스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눈물을 훔쳤다.

조계종 여산당 혜거 대종사 문도회 장의위원회(위원장 정념 스님)는 이날 오전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혜거 대종사의 영결식을 봉행하고, 스님의 재적본사인 월정사에서 다비식을 진행했다. 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원로의원 원행·암도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삼지 스님,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과 문도스님들, 이원형 금강선원 신도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혜거 대종사의 영정과 위패를 든 장의위원 스님들은 경내 적광전 앞마당에서 부처님께 세간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천왕문을 나와 전나무숲길로 향했다. 문도스님들과 포교사, 금강선원 신도들이 만장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운구차에서 대종사의 법구를 내린 장의위원회는 일주문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오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월정사를 찾는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잠시 길을 멈추고 합장해 혜거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대종사의 법구와 만장 행렬은 해탈의 숲에 조성된 오대산 사리골 연화대에 도착했다. 법구가 연화대 위로 이운되는 사이 혜거 대종사가 생전 좋아하던 노래 '길닦음'이 울려 퍼졌고, 구슬픈 소리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강선원 가가합창단도 노래 '천상의 꽃'을 부르며 음성공양으로 스님의 화엄왕생을 기원했다.

사부대중은 3~4m 떨어진 곳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불 들어갑니다. 불·법·승"이라는 외침과 함께 연화대에 불길이 치솟았다.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서 대종사의 법구는 연기를 따라 오대산 지수화풍으로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해탈의 숲에 조성된 연화대로 향하고 있는 대종사의 법구와 만장 행렬의 모습.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갑작스러운 큰스님의 원적에 아쉽고 안타깝다. 대종사는 35년간 금강선원을 이끌면서 강남 포교에 정성을 다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며 "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정진 하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혜거 대종사는 명상의 세계화에 초석을 다진 이 시대 큰 스승"이라고 강조한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명상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뿌리가 되어 준 큰스님의 원력에 보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묘법심(서울, 66) 불자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일러준 혜거 대종사의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묘법심 불자는 "23년간 금강선원에서 혜거 스님과 공부했다. 항상 올곧았던 스님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애쓰셨는데, 내가 무지해 깨우치지 못했다"며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고 참회했다.

김상수행(서울, 85) 불자도 "이틀 전까지 강의를 하셨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느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내 인생의 스승이신 혜거 스님의 극락왕생을 마음 깊이 기도한다"고 추모했다.

불교경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강남 도심 포교를 이끌며 시대에 맞는 한국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힘쓴 여산당 혜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울음을 뒤로한 채 추모 입정을 끝으로 오대산의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오전 8시,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는 영결식이 봉행됐다.

장의위원회 위원장 정념 스님은 원행 대종사가 대신한 영결사에서 갑작스럽게 입적에 든 스님을 향한 허전한 마음을 표했다. 스님은 "경전 강의때는 열정과 환희심으로 가득하고 〈화엄경소론찬요〉 번역 땐 피로를 잊은 듯하며 참선과 명상 지도 때는 누구보다 자상하셨다"면서 "스님께서 스승님의 영은사 3년 결사를 계승하고자 이곳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을 건립하고 불교 인재 불사를 발원하셨듯,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서 이곳이 미래 한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할 위대한 인재가 나오는 도량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혜거 대종사의 3재는 11월 24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4재는 12월 1일 오전 10시 금강선원서, 5재는 12월 8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6재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금강선원서, 막재는 12월 22일 10시 오대산 월정사서 봉행된다.

종상 대종사, 적멸에 들다

하성미 · 김가령 기자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일원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종상 대종사가 다비를 통해 사바세계서 마지막 법문을 보이고 있는 모습.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서
종상 대종사 원로회의장 엄수
"이사겸비한 宗匠" 애도 물결
묵묵히 종단 뒷바라지 원력행
49재, 불국사 · 기림사서 봉행

이사무애(理事無礙) 원융의 삶을 실천하며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펼친 이 시대의 원력보살, 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 대종사(불국사 회주)가 불국토 토함산의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위원장 자광 스님)는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종상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의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상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한 이래 수행과 교화와 가람수호에 힘쓴 선지식이었다"며 "산승이 금일 법공양 올리오니 진리의 삼매락을 누리소서"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에서 "종상 대종사는 이사(理事)를 겸비한 눈 밝은 종장(宗匠)이자 만덕(萬德)의 법기(法器)를 갖춘 원력보살이었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의 가람수호에 매진하며 토함산 산주(山主)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종상 대종사께서 10단의 연화교와 8단의 칠보교를 건너 열반에 이르셨다는 소식에 산주를 잃은 슬픔에 토함산도 산그늘이 길게 드리웠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두 발은 항상 서라벌의 넓은 들녘을 딛고서 꿋꿋히 서 있고 두 손은 언제나 토함산의 푸른 소나무를 어루만지시다가 이제 금오(金烏)가 되어 날개를 펴고서 하늘을 꿇고 날아가시니 사부대중은 비감(悲感)으로 말을 잊은 채 사위(四圍)는 적요만 가득하다"고 슬픔을 전했다.

이어 "모든 종책불사에 든든한 후견인을 자처하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스님은 자비보살의 화현이셨다. 종장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후학들 역시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것이다"고 추도했다.

불국사 원로 덕민 스님은 조시를 전하며 추도했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허운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 내빈들이 조사를 통해 종상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대궁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재가 내빈들의 조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종상 대종사는 천년고찰 불국사의 회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설파하시며,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셨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이셨다"며 "부처님의 은혜를 사회로 환원하셨던 대종사의 큰 뜻을 받들어 저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대중 포교에 늘 앞장서며 불교를 지향하신 큰 스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실천하는 우리 불자가 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큰 스님의 공덕을 기린다"고 추모했다.

대궁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은 영결식을 마무리 하며 참석해 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행 스님은 "저희 상좌들은 스님의 뜻을 이어 정진하며 대중과 화합하고 원융살림을 일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결식 이후 종상 대종사의 법구는 오색만장 긴 행렬을 따라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됐고, 토함산을 붉게 물든 낙엽은 법구를 따라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영정과 위패를 든 이운행렬을 따라 마지막을 길을 배웅하던 불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스님 불들어 갑니다." 애통한 울음으로 소리치는 대중을 뒤로 한 채, 연화대에 안치된 대종사의 법구는 붉은 불기둥 속에서 지수화풍이 되어 토함산으로 돌아갔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회주 종상 대종사는 1965년 7월 1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산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75년 불국사 재무국장, 1980~1985년 총무원 조사국장·총무국장을 지냈으며, 8·9·12·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대종사는 2021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으며, 2022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이후에도 불국사 회주, 분당 석가사 주지, BTN불교TV 명예이사로서 불교발전과 중흥을 위해 후학을 제접해오던 중 11월 8일 새벽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한편, 종상 대종사의 49재는 11월 14일 오전 10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된 초재에 이어 2재는 11월 21일 기림사에서 봉행하며, 그 외 3재 11월 28일, 4재 12월 5일, 5재 12월 12일, 6재 12월 19일, 막재는 12월 26일 불국사에 봉행될 예정이다.

曹溪宗 元老議員 大弓堂 宗常 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8일 열반하신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大弓堂 宗常大宗師의 永訣式을 1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佛國寺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삼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中興을 위해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대궁당 종상대종사 추모제 안내

■ 초재	2024년 11월 14일 10시	불국사
■ 2 재	2024년 11월 21일 10시	기림사
■ 3 재	2024년 11월 28일 10시	불국사
■ 4 재	2024년 12월 5일 10시	불국사
■ 5 재	2024년 12월 12일 10시	불국사
■ 6 재	2024년 12월 19일 10시	불국사
■ 막재	2024년 12월 26일 10시	불국사

문의처 : 불국사 종무소 (054-746-9912)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

“만암·서옹 스님 결사 정신을 되살리자”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세미나
고불총림 역사 · 계승 방안 논의
만암→서옹 이어진 결사 조명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공동체의 새로운 지향점을 논의했다.

고불총림의 역사적 위상과 계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불총림연구원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고불총림연구원장으로 임명하고 고불총림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불총림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고불총림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불총림연구원장 금강 스님은 ‘고불총림의 역사적 의의와 서옹 스님의 계승’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만암 스님에서 서옹 스님으로 이어진 결사정신의 구현을 강조했다.

먼저, 금강 스님은 “만암 스님이 창설한 고불총림은 백양사와 호남불교를 아우르는 결사이자 수행공동체”라며 “서옹 스님은 고불총림의 계승자로서 만암 스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의 종단 체계에서 고불총림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이 총림을 통해 추구한 결사 정신을 되살리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 금강 스님은 “고불총림이 단순한 수행처를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수행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의 경제 모델과 자비실천 모델, 서옹 스님의 참사람수행프로그램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은 선수행에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계승한 고불총림의 선수행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의 치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고불총림연구원의 출범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불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재 조계종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사찰이 마음치유와 위안, 자아성찰의 수행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의 가풍을 철저히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한국 정신문화를 시대마다 이끌어 가는 마중물과도 같은 곳”이라며 “고불총림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백양사 14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행과 자비보살행을 하셨던 역대 전등 스승들의 위업을 연구하고 하나하나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림복지관 ‘놀라운드’ 개소…‘디지털 복지’ 선도

11월 14일, 관내서 개소식
AR · VR, 드론, 모션인식 등
어르신 대상 디지털 돌봄도


스마트폰으로 미니 로봇을 조종해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VR과 AR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 체험이 이제 복지관에서도 가능해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 이하 중림복지관)은 11월 14일 관내에 미래복합문화공간 ‘놀라운드’ 개소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놀라운드’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AI,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놀라운’과 ‘Digital Playground’가 결합한 ‘놀라운드’는 서울시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 공모사업’과 중구청·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24 중구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어르신과 초등학생 등 500여 명은 놀라운드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복지 공간의 개방을 환영했다.

이해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주민들이 놀라운드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라운드 현판식 이후 이용자들은 각 층 별로 구성된 디지털 체험존에서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1층 야외주차장에서는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드론축구, 3층 대강당에서는 △4족보행로봇 △AR활쏘기 체험 △슈팅글라이더 만들기, 본관 5층 프로그램실에서는 △AI마음상담소 △VR체험 △디지털페인팅 △미니로봇축구 △3D펜 키링 만들기, 5층 놀라운드에서는 버추얼큐브를 활용한 모션인식 게임 체험이 가능했다.

특히, 디지털 돌봄 체험 버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화상대, 보행보조 등의 생활 복지 디지털 기술을 제공했다.

디지털 체험을 즐긴 어린이들은 “계속 찾아와서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등 소감을 남겼다.

김가령 기자

사노위, “화성 아리셀 참사, 협력사도 책임 있다”

11월 12일, 서초 삼성전자 앞서
유가족 · 시민단체 시민추모제 개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생을 마감한 지 4달여 시간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들이 아리셀 납품을 받는 삼성전자에 ‘협력사 행동규범’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개최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추모제’에 동참했다. 이날 추모제는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과 협력 관계인 삼성전자에 참사 해결과 거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추모기도에 앞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시경 스님은 “세계적 인권 의식 성장으로 노동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삼성 역시 윤리경영,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통해 이에 발맞추고 있으나 아리셀 참사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세계인들은 이제 제품 제작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소비하므로 삼성전자는 이것을 알고 책임감에 따라 에스코넥에 행동규범 이행과 조사 참여, 유가족 협상을 요구해야한다”며 “사노위는 앞으로도 노동과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원하며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 승인

스포츠공정위 출마 ‘승인’
내년 1월 14일 선거 출마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사진)의 연임 도전이 승인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하기로 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기흥 회장은 2025년 1월 14일 개최되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어 3연임에 나서게 됐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이기흥 회장에게 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11월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허운 스님, 관음사 주지)는 11월 12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일동은 “불교계는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거나 이 회장의 입장을 무조건 편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 회장의 그간 업적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올해 파리 올림픽 역대 최고 수준 성과 등 한국 체육사에 막대한 공헌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역임 및 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수행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애써온 일 등을 강조하며 “이를 비춰봤을 때, 이 회장에 대한 현재 ‘망신주기’식의 수사 의뢰는 너무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광도서관, 4년 만에 대중 품으로

불광사, 11월 6일 재개관식 개최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임시 폐관



‘불서(佛書) 수집 전문도서관’인 불광도서관이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는 11월 6일 불광교육원 3층 불광도서관에서 ‘불광도서관 재개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불광도서관은 1996년 10월 6일 불자들에게 다양한 불서와 불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관했다. 도서관은 불서뿐만 아니라 인문, 철학, 순수과학 등 8000여 권이 넘는 장서와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임시 폐관됐다가 불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4년 만에 재개관하게 됐다.

이날 재개관식에는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불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재개관을 기념하는 테이프 및 축하떡 커팅식, 주지 동명 스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주지 동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광도서관 재개관을 계기로 불광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 봉사팀장 및 봉사 팀원들은 “불광도서관 운영을 내실 있게 꾸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재개관한 불광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향후 불광교육원 교육강좌 수강생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운영시간 연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심산 스님

진흥원, 11월 14일 수상자 발표



제21회 대원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심산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21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11월 14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출가 부문 특별상에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이, 재가부문 장려상에 배광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심산 스님은 ‘포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장학사업을 비롯해 전국의 군법당 불사,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며 “국제포교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본부장을 맡는 등 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는 공로를 인정해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

조계종 포교원 ‘은빛 둘레길’ 개발

19번째 공개…5개 코스로 구성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19번째 개발한 ‘영천 팔공산 은빛 둘레길’을 공개했다. 포교원은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 순례길을 개발했다.

이번 ‘영천 팔공산 은빛 둘레길’은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다. 은해사 분수광장부터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숲인 금포정(송천길)을 걷는 코스(1코스-1.3km)와 은해사-신일지-운부암(2코스-3.6km), 은해사-신일지-인종태실-백흥암-중암암(3코스-5.9km), 은해사-신일지-인종태실-백흥암-묘봉암(4코스-6.6km), 은해사-기기암(5코스-3km)을 걷는 5개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는 왕복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해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군종교구, 불자 군종부사관 연수

11월 5~8일 강원 三寺 순례해



군포교 최전선에 있는 불자 군종부사관을 격려하고 군포교 방안을 논의하는 연수가 열렸다.〈사진〉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1월 5~8일 강원 영동권(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사찰에서 ‘2024 우수불자 군종부사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불자 불교 군종부사관을 격려하고 군종교구와 소속감 및 유대감을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승 7명, 불교 군종지원부사관 12명, 군종교구 1명 총 20명이 연수에 동참했다.

법원 스님은 “군종교구는 군종부사관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대 상황에 맞는 포교활동 지원은 물론, 불교 군종부사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군종장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이 오계를 설하고 수계대중을 축원했다.



수계대중인 대학생들은 오계 엄수를 다짐하고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건학위원회는 11월 12일 교내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18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대중스님들이 연비 대신 단주를 전해주고 있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들이 수계대중을 대표해 계첩을 수여받았다.

1800여 동국대 WISE캠 학생, "부처님 법 지키겠습니다"

동국대 WISE캠 'Young Camp' 개최
학생기획단, 청년 눈높이 맞춰 기획
1800여 학생 수계 통해 불자로 거듭
돈관 스님 "오계 실천 바른 삶" 당부

경주 · 글=김가령 기자, 사진=하성미 기자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동국대 WISE캠퍼스(이하 와이즈캠퍼스)의 1800여 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는 11월 12일 교내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이하 영캠프)'를 개최했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청년 전법 원력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청년 불자 양성 프로젝트다.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학생들로 이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 어울림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에서 열리는 첫 영캠프이자 학생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의미가 배가됐다. 학교 불교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은 잠재적 청년 불자 발굴을 목표삼아 젊은 세대를 위한 'Young한 불교'를 주제로 행사 전반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10월 초부터 진행된 회의를 통해 불교동아리 별 슬로건을 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방안 등을 구축해갔다.

한 자리에 모인 재학생 1800여 명은 수계법회를 통해 청년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했다. 수계법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갈마사를,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교수사를 맡았다. 또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유진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혜명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증사로 참석했다.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의 청년 1800여 명이 수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감동을 표할 길이 없다"며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수계대중에게 계의 중요성을 설했다. 돈관 스님은 "오계란 불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라며 "오계 수지를 통해 바른 삶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대중에게 불자로서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여러분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마음 속에 내재한 불성을 일깨우는 방아쇠를 당겼다"며 "앞으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세운 원을 이룰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해나갈 일만 남았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 퀴즈대회 참여중인 학생들.



(왼쪽부터) 학생기획위원 김승배, 박지수 학생.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도 학생들이 불자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류 총장은 "영캠프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원력이 대단함을 알고, 동국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받침대가 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겠다"고 전했다.

돈관 스님은 △산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비심을 가질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복과 덕을 지을 것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킬 것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할 것 △술과 같은 중독성물질을 가까이하지 않고 맑은 지혜를 가질 것 등의 오계를 수계대중인 대학생들에게 설하고 불자로서 자세를 강조했다.

수계대중은 "수계받는 저희들은 다섯 계율을 잘 지키는 불제자가 되겠다"며 그간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계를 수지한 수계대중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연비를 받았다. 불자로서 초발심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연비 의식은 장소 관계상 단주 수여로 대체됐다. 의식에는 불교대학 강사스님들과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학인스님 등 대중스님 90여 명이 참여했다.

연비 의식을 마친 이들에게는 계첩이 수여됐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들인 김승배(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따' 회장) 학생과 박지수(학생기획위원단 부단장) 학생이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각각 광선(光善), 가성행(家聖行)이라는 법명을 받은 두 사람은 불자로서 오계를 엄수할 것을 다짐했다.

김승배 학생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설한 오계를 삶의 중심이자 방향으로 삼고 앞으로 삶의 잘 일궈나가고 싶다"며 "타의 모범으로서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치에 맞게 노력하겠다. 학생일 땐 학생으로서, 사회인일 땐 사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계첩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박지수 학생은 젊은 세대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길 바랐다. 박 학생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직까지도 불교를 딱딱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올곧은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면서 "모두가 청정한 오계를 기준을 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의지를 가진 청정하고 행복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원문 봉독을 이어간 대중들은 "앞으로 저희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자비광명 아래 살 것을 다짐한다"고 서원했다.

수계를 받은 학생들은 수계법회에 이은 2부 어울림 한마당과 3부 뮤지션 공연에서 가수 하하, 뉴진 스님이 무대에 오른 축제를 즐기며 불자로 거듭난 하루를 기념했다.

한편,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는 2023년 12월부터 연이어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설립되며 청년 포교의 전두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내 불교동아리는 부루나(불교문화대), 바라너지(스마트시티융합대) 다르마(글로벌사회경영대), 메따(간호학과), 심우회(한의학과) 등이 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2024년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귀의삼보하옵고,
석림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총회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상록원 3층 (정기총회 이후 저녁공양)
안건 | -. 석림동문회장 추대의 건
-. 기타안건
•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 석림동문회 장학금 수여
• 재무보고

석림동문회 회장 돈관

※ 저녁공양을 상록원에서 준비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참석여부를 사무국 간사(010-9054-9632)에게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온 나눔보살 원력

미소원, 11월 9일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봉행

본지 창립 30주년 발전기금 후원
생명나눔실천부산, 한국JTS 등
십시일반 후원금 · 기도비 모아
총 4095만원 후원금 전달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사단법인 미소원은 11월 9일 법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자비나눔 회향으로 창립 13주년을 기념했다. 미소원은 13년 동안 이어온 자비나눔 원력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사)미소원은 11월 9일 법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서 미소원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기금 500만원, 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에 500만원, 부산불교환경연대에 950만원, 한국JTS에 2145만원, 총 409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십시일반 모금과 환경참회기도 등 회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을 비롯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장태석 이사,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미소원 회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현대불교신문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정론지로서 불법홍포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미소원의 자비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후원금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불법홍포에 정진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소원에 오면 마치 보살을 양성하는 학교 같다고 느낀다. 무주상 보시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후원을 해주시니 더욱더 힘을 얻어 환경운동에 정진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로 시작해 2011년부터 사단법인 미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구치소 교정활동, 국립마산결핵병원 후원, 동구지역 취약계층 대상 반찬봉사, 아빠봉사단의 동구지역 취약계층 주거지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매해 명절 물품, 계절용품, 반찬, 청소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어사, '구법삼보일배'로 발원 정진

산문 매표소부터 삼보일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삼보일배를 통해 수행과 정진을 위한 발원의 장을 펼쳤다.

범어사는 11월 10일 경내 일원에서 '구법삼보일배'를 봉행했다.〈사진〉

구법삼보일배는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회원들의 발심을 위한 장으로 2016년부터 매년 봉행됐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중단되었으나 이번 해부터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재무국장 법귀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교육국장 각전 스님, 호법국장 정수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동참해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삼보일배 수행정진의 장을 열었다. 아울러 호국을 기원하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확장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들과 조영택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및 동문회원들은 범어사 입구 매표소 앞에서 삼보일배로 출발해 대웅전 앞 마당까지 2시간 동안 정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뉴질랜드 '남국선사' 참선수행도량 낙성

11월 10일, 대웅보전 낙성식 봉행



해외 뉴질랜드에 한국 참선 도량이 낙성해 모습을 드러냈다. 수선화 봉우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량 건축양식과 뉴질랜드 한국 불자들이 30년 동안 준비한 결실로 의미가 깊다.

조계종 뉴질랜드 남국선사(주지 법일 스님)는 11월 10일 대웅보전에서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낙성식에는 남국선사 회주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과 주지 법일 스님, 멜리사 리 뉴질랜드 장관, 김홍기 주뉴질랜드 총영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남국선사 신도회는 이날 불사의 선봉장으로 이끌어 준 회주 수불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불사에 앞장 선 모든 불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삼매 법석 연다

12월 한 달간 대장정…설법전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봉행한 화엄산림법회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매년 봉행하는 화엄법석의 장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전국 최대 최장의 법석으로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30일 동안 이어진다. 화엄산림법회는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을 실현하듯 전국의 재가 불자들이 선사의 법문을 청하고 기도하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통도사 설법전에 영가 위패를 봉안해 영가들이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한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매주 천도재를 봉행하는 특별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도사 개산조 자장 율사는 화엄의 대가로 〈화엄경〉을 최초로 강설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자장 율사의 법연을 이어가는 법석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

입재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이며 입재법문은 前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법문하며 오후 법회는 화엄경 현담으로 강설을 시작한다. 이후 화엄산림법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봉행되며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12월 11일과 25일에는 월하 스님, 벽안 스님 추모다례가 열려 오후에만 법회가 진행된다. 회향은 12월 30일이며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 법문을 설한다.

통도사의 화엄산림 회향은 영단시식을 마친 후 영가 위패와 탑다라니를 소대로 이운하며 봉송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매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자비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턴 투워드 부산'으로 호국영웅 추모

11월 11일, 부산불교 동시 타종


부산불교계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의식에 동참하며 일제히 범종을 울렸다.

부산 불교계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의식에 동참하며 일제히 범종을 울렸다. 턴 투워드 부산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날로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호국불교를 강조하며 팔관회 이념을 현대에 구현하고 실천하고자 매년 의식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부산 전역 사찰은 추모시간에 맞춰 동시에 11번 타종하고 묵념하며 호국영웅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정오 스님은 "턴 투워드 부산은 전 세계의 호국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의식"이라며 "후손들은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국의 귀중함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제안한 추모행사이다. 빈스 커트니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춰 동시에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매년 11월 11일 11시(한국 시간 기준)에 참전국은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 묵념하며 추모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각 사찰은 범종과 목탁, 죽비 등을 1분 동안 11타를 치고 경내 모든 사부대중은 UN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고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황령산 옥천암, 산신재·행복쌀 나눔잔치

11월 9일 옥천암 경내 산신재 봉행
자비의 쌀 1080kg 남구청에 전달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령산 옥천암(주지 대각 스님)이 11월 9일 경내서 '산신재 및 행복 쌀 나눔 잔치'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산신재 의식으로 시작해 자비의 쌀 전달, 축하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대회로 이어졌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쌀 10kg 108포를 남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각 스님은 "지난 10년간 십시일반 이웃돕기 행복쌀 나눔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눔을 행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비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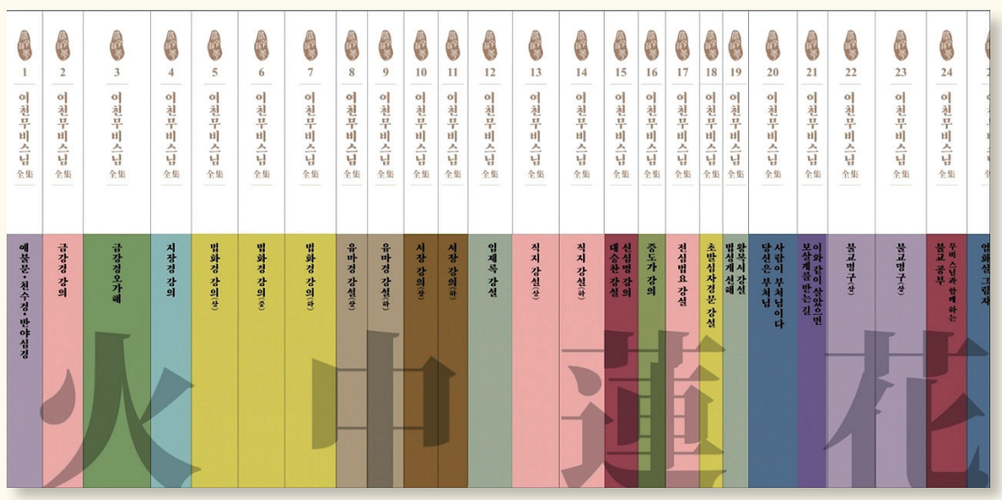
옥천암은 2014년부터 황령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해 산신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火中蓮華 무비큰스님 전집출간 봉정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명심회 주관으로 여천 무비큰스님 전집 화중연화 출간 봉정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꽃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화중연화' 전집으로 1권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임제록강설,직지강설 ,증도가 초발심자경문,불교명구와 염화실 그림자 25권의 방대한 전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비 큰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전집 봉행법회에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 문 의 : 051-508-3043
■ 주관·주최 :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염화실TV 0907

“가야불교 왜곡하는 ‘김해시史’ 폐기하라”

가야문화진흥원, ‘김해시사’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장유 화상 · 허왕후 존재 등
가야불교 전면 부정해 ‘논란’
김해시사 편찬 토론회서 격론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스님)이 가야불교사를 왜곡하는 〈김해시사(金海市史)〉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가야문화진흥원과 은하사, 장유사, 흥부암 등 김해시 불교계는 11월 4일 〈김해시사〉 2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해시사〉가 가야불교사를 부정하고, 식민사관으로 점철됐다는 것이 성명서의 주장이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은 성명서에서 “김해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남기려는 김해시사 고대사 편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특히 가야의 42년 건국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허왕후의 존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희석했다”며 “가야초기 장유 화상과 허왕후에 의해 전해진 가야불교를 전면 부정하고 김해의 옛 지명인 가야를 과거 일제 식민사학의 유풍을 이어 임나(任那)로 고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해시사 2권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는 “가야불교를 부정하는 조원영 전 합천박물관장을 저자로 선정했다”면서 가야불교를 인정하는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불교학자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편향된 자료들로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필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곳곳에 ‘의문스럽다’ ‘꾸며졌다’ ‘가미했다’ ‘불교적 윤색이다’ 등의 용어가 등장해 시종일관 가야불교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은 김해불교의 정체성인 가야불교를 부정하고, 은하사, 장유사, 만어사 등 연기 사찰들의 역사성을 훼손하려는 시사편찬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흥원은 “20억여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로 가야역사의 발굴은 커녕 왜곡된 역사 기술로 김해 시민과 불교계를 기만한 시사편찬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해시 불교계도 김해시사의 폐기를 요구했다. 김해시 불교계는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김해시사 2권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해시사는 학자 개인의 주장을 싣는 자료집이 아니라, 김해 역사의 일관성을 갖춘 통사(通史)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사 토론회’가 열린 국립김해박물관 앞에서 역사시민운동 단체 회원들이 김해시사 편찬 위의 가야사 왜곡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또한 “김해의 정체성은 ‘가야고도’다. 김해시가 선봉에서 〈일본서기〉의 임나를 끌고 와 ‘임나사’를 세우려 한다. 검증 안 된 임나의 지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면서 “왜곡된 역사서가 편찬되면 김해시민의 자긍심은 고사하고 향후 주변국과 외교·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야문화진흥원은 11월 11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이번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야사,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를 주제로 ‘김해시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역사운동시민단체 측과 김해시사 편찬위원회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역사시민단체 측에서는 김영진 전 경상남도 도의원과 오종흥 코리아히스토리 편집장이, 편찬위 측에서는 이근우 부경대 교수와 이주현 부산고고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격론을 벌였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양측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토론회를 통해 편찬위의 편향된 역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상적인 시사(市史)라면 그동안 발굴되고 축적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 성과물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편찬위는 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뒤에 계셔요…수능 대박 기원!”

정광학원, 수험생에 선물 전달
핫팩 · 찹쌀떡 등 세트로 구성
덕문 스님, 선물 전달로 격려해
정광중고 700여 명 수계법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수능 시험 보세요. 여러분 뒤에는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이 광주 정광고 수험생들에게 ‘수능대박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스님)은 11월 11일 대학수험능력시험을 앞둔 광주 정광고(교장 영일 스님) 수험생 306명에게 ‘수능대박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 광주 증심사 중현 스님 등이 정광고 12개 반을 모두 방문해 선물을 전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이 학생들에게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교실을 방문한 덕문 스님은 “그동안 준비했던 수능시험이 다가왔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시험을 보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뒤에서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수능에 필요한 목록이 적힌 ‘수험생 체크리스트’와 ‘잘 풀려라’는 의미가 담긴 화장지, ‘합격하라’는 찹쌀떡 과자와 핫팩 등 다채로운 물품으로 구성됐다.

선물을 받은 수험생들은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칠판 글씨와 함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룸비니관에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수계법회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화엄사 교구 스님들이 7증사로 참여했다. 이날 법회로 정광고 학생 498명과 정광중 180명,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해 총 700여 명이 불자로 거듭났다.

연비를 통해 불자로 태어난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다짐하고 5계를 받아 부처님을 믿고 받드는 참다운 불제자가 됐다”며 “이제부터 불자로서의 의무와 행실을 다하오리니 자비를 실천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된 삶을 살아 이 땅위에 부처님의 불국정토가 이룩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상을 예배 대상으로… ‘불복장작법’ 시연

보존회 11월 11일 백양사서
3년간 후학 전수 회향 자리

새로 조성한 불상에 숨결을 불어넣어 예배와 공양의 대상으로 만드는 ‘불복장작법’ 시연이 펼쳐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회장 경암 스님)는 11월 11일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 교육관에서 ‘2024년 불복장작법 공개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불복장작법은 불상·불화 등을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7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선맥과 강맥, 율맥 그리고 염불맥 등 4대 맥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염불맥 중에서도 불복장작법이 도성



스님에게 전수되어 앞으로 모든 종단에도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시연을 주관한 도성 스님도 “교육생들이 오늘 교육을 통해 불복장의 의미와 의식 전체를 보고 배우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은 절단(단차림)에 이어 도량결계, 삼화상청, 오방단 조성, 후령통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오방단에서 진행된 오보병 조성은 증명법사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과 아사리 도성 스님을 위시해 오방법사 현소(중앙), 종지(남방), 송강(동방), 우인(서방), 승담(북방) 스님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나눔으로 회향하는 도량 되겠다”

마이산 탑사, 가을 산신대재
11월 9일 경내 특별법단서
자비의 쌀 3000kg 나눔해

마이산 탑사가 가을 맞이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 3000kg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11월 9일 경내 돌탑군 앞 특별법단에서 갑진년 가을 산신대재와 백제 청동향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특별법단에는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 3000kg가 진설됐다.

1부 기념법회에서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태원건설, 혁신금속의 후원으로 마련된 100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3000kg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 갑진년 가을 산신재에는 진성 스님과 신도대표가 법단에 올라 〈무량수경〉을 독송했다. 이



어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산신기도, 산신불공, 신중작법, 39위 신장법문, 천지기도가 설행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이산 탑사는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거사께서 산신재 기금으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도왔던 큰 뜻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늘 산신재와 백제청동향로 점안식을 통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3000kg를 전달하는 것도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늘 자비심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덕원사, 울산 첫 반려동물 천도재 봉행

11월 10일 경내 대웅전서
400여 보호자 동참해 애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항상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덕원사에서 이렇게 천도재를 준비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던 조윤지, 장원찬 부부가 덕원사가 봉행한 울산 첫 반려동물 무료 합동 천도재·예수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가 11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울산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무료 합동 천도재 및 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천도재에는 덕원 스님, 월정사 한주 현기 스님, 강한설 덕원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과 울산, 포항, 경주 등 인근지역에서 반려동물과 이별한 반려동물 보호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여법한 천도재를 위해 덕원사는 반려동물 영단과 350여 개의 위패를 마련했다. 동참 대중은 각자 준비한 공양물을 영단에 올리며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덕원 스님은 “반려동물이 육도윤회를 통해 다음 생에는 선도(善道)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고창종합병원, MOU 체결

11월 7일 선운사 동상실서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과 고창종합병원(이사장 조남열)이 11월 7일 고창 선운사 동상실에서 공동발전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체결된 협약은 △환자진료와 공공 발전을 위한 인적·기술적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및 봉사활동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공동노력 △상호필요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 △건강 증진 사업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복지재단의 건강 파트너이자 지역 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하위하라, 어린이불교학교 졸업식

11월 10일 유원대 대강당서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가 11월 10일 유원대 대강당에서 ‘2024년 어린이 불교학교 졸업식’을 개최하고 33명의 어린이 졸업생을 배출했다.〈사진〉

마하위하라는 어려운 이주 생활에서도 어린이들이 불교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마하위하라 스님들과 한석실 유원대 교무처장, 박용환 국제교류원장 및 졸업생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 정법으로 훌륭한 어른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남사, 21일 금강경 독송 회향법회

11월 13일 경내 설법보전서



해남사가 21일간의 금강경 독송 정진을 회향했다.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11월 13일 경내 설법보전에서 ‘제7차 금강경 21독 독송 정진법회’를 회향했다.〈사진〉 해남사 금강경 독송법회는 21일간 하루 3차례의 정진을 통해 총 441독을 독송했다.

회향법회에는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한주 만초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원 스님은 “해남사에 부임한 이래 금강경을 독송하는 도량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여러분의 수행정진으로 반드시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聯 광주 불교유산 학술대회

11월 8일 광주시청 무등홀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가 11월 8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불교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술대회는 2024 빛고을관등회 일환으로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해 개최됐다.

이날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관등회를 통해 지역 불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는 천년의 시간이 보증하는 콘텐츠로 앞으로도 이런 문화를 후대에 잘 전승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9세기 사찰 유물, AI로 복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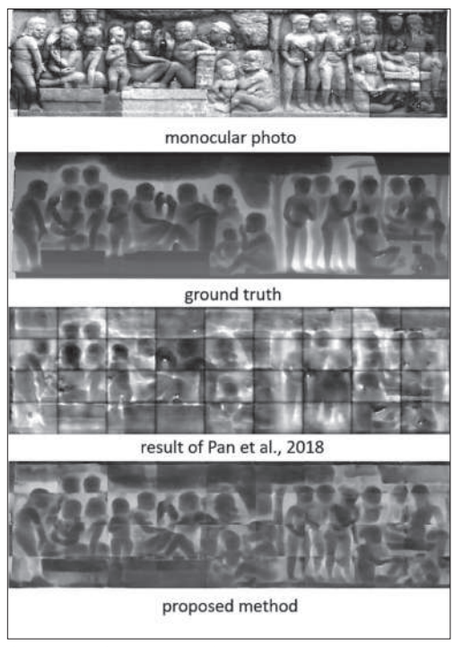
134년 전 흑백사진 기반 복원
사찰 기단부 부조판 재구성
21세기형 다각도 촬영 기법
"세계유산 접근성 높일 기술"

김민재 객원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찰의 부조판을 재현하는 AI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지난 11월 5일 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 사진·카메라 전문 매체 '페타픽셀' 등 해외 다수 매체는 리츠메이칸대의 보로부두르 사원 부조 3D 복원 소식을 전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学)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찰에서 찍은 134년 전 흑백 사진을 3D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기존 스테레오스코프(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결합해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기) 방식을 개선해 제한된 사진 데이터만으로 3D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21세기형 스테레오스코프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기술 시험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찰의 숨겨진 부조를 재구성했다. 재구성에 사용된 사진은 134년 전 손상된 보로부두르 사찰 기단부의 내부 부조판으로 촬영 후 원래 모습으로 복원돼 현재는 볼 수 없다.



(위에서부터) 18세기에 촬영한 흑백 사진, 신기술을 적용한 이미지, 2018년 복원 이미지, 신기술 중간 작업.
사진출처=리츠메이칸대학 컴퓨터 과학 연구진

과거에 동일한 사진으로 재구성을 시도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2D 이미지 상에서 대상의 굴곡을 도출할 수 없어 실패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1세기형 스테레오스코프에는 곡선을 추적하는 '엣지 맵'과 도형이나 배경요소 등의 이미지를 색상별로 분류하는 '시맨틱 맵'을 결합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실제와 근접한 이미지를 재구성해 이전 기술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인간 형상, 상징 및 기타 장식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시각화했다. 아직 세밀한 부분의 재구성까지는 어렵지만 2D 이미지를 3D화 하는 데 탁월한 기술이라는 분석이다.

다나카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은 "우리 기술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로 재구성한 유물 모델이 현존하는 유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제공한다"면서 "보로부두르 사찰 재구성 프로젝트는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몰입형 문화유산 체험의 문을 열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세계유산을 더 많은 미래 세대에게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베트남불교승가회 대표단, 달라이라마와 회담

베삭축제에 티베트불교단체 방문 요청
"티베트 · 베트남 불교 교류 깊어지길"


달라이라마와 VBS 대표단의 회담사진.
사진출처=ANI 뉴스 네트워크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불교승가회(VBS) 대표단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와 회담을 가졌다. 지난 11월 10일 '더 티베트 넷' 'ANI 뉴스 네트워크' 등 외신은 VBS 대표단의 회담에 대해 보도했다.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한 VBS 대표단은 VBS 최고 종정위원 틱탐티 스님, 집행위원인 틱탐둑 스님, 베트남 불교대학 부총장 틱낫투 스님을 비롯해 해외 베트남 불교 협회 회장단과 주요 불교단체 회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주 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불교회의에 참석한 후 다람살라를 방문한 것으로 전했다.

VBS 대표단은 8일 오전 달라이라마 관저에서 열린 회담에서 내년 5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베삭축제에 티베트 불교대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달라이라마에게 요청했다.

대표단의 일원인 틱낫투 스님은 "VBS가 주최하는 가장 주요한 불교행사는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리는 베삭축제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적인 티베트불교 대표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VBS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국가승인을 받은 불교단체로 이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티베트 불교대표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여러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VBS측은 "우리는 티베트와 베트남 불교계 간의 장기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티베트 불교를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달라이라마의 저서 중 일부를 번역 및 출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 요청했다.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달라이라마께서 장수무강하시길 청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회담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의 핵심은 평화다. 현대에는 타 종교인들도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회된다"며 "티베트와 베트남 간 불교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듬해 베트남 베삭축제에 티베트불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지혜 담긴 고양이 사진, 日 열도 울리다

센넨지 SNS 포교 인기몰이
"적절한 비유, 큰 감동 전파"

1597년에 창건된 융통염불종(融通念仏宗) 말사 일본 오사카 센넨지(專念寺)의 귀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교가 화제다.

지난 11월 4일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고양이 사진과 짧은 글귀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본의 스님을 소개했다. 센넨지 사원의 야부모토 마사히로 주지 스님은 고양이 사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짧은 글귀로 적어 SNS 게시글로 올리는 온라인 포교에 힘쓰고 있다.

10월 31일 야부모토 스님은 고양이 사진 위에 "콜라 한 잔의 가격은 산에서 400엔(약 3700원), 축제에서 300엔(약 2700원), 자판기에서 150엔(약 1400원), 슈퍼마켓에서 85엔(약 800원)"이라며 "존중받지 못한다면 억지로 환경에 맞추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길 바란다"고 적어 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1만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유로 큰 감동을 주었다" "실제로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느니 나를 환영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쉽다"고 공감의 댓글을 남겼다.



센넨지 사원의 SNS 게시물. 사진출처=센넨지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야부모토 스님은 "많은 사람이 당신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으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는 말은 하지 마세요" "피곤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있고 내려다보면 길을 가로막는 고양이가 있다" 등의 게시글을 SNS에 업로드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야부모토 스님은 "불교가 내륙에서 일본으로 전파되던 6세기 경, 고양이가 쥐 피해를 막는 사찰의 수호자였다는 전설을 듣고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현재까지도 사찰 근처 길고양이 구조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SNS 게시글을 보고 일각에서는 나를 '고양이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우연히 시작한 전법 활동이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하다"고 전했다.

SNS에 게시되는 짧은 글귀는 야부모토 스님이 매일 직접 종이에 써서 사찰 입구에 붙인다. 이런 독창적인 포교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남녀노소의 인기를 끌며 사찰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불교 사찰, 성소수자 안전지대로 거듭

종단 차원 성소수자 담론 확대
성소수자 안전사찰 · 묘역 등 조성


전일본불교회가 만든 레인보우 스티커.
사진출처=JB프레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담론이 커진 현재, 일본 불교계에서도 성소수자들에게서 문호를 개방하고 사찰을 안전지대로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일본의 'JB프레스'에선 일본 불교계의 성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보도했다.

일본 불교계가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관점에서 평등성을 논한 것은 지난 2020년,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전일본불교회가 개최한 공개 심포지엄부터다. 당시 심포지엄은 '불교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라는 대전제를 걸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평등성이란: LGBTQ의 시점에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당시 전일본불교회 이사장 도마츠 기세이 스님은 심포지엄에서 "불교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제도적 차별에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설해왔다"며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항상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해 평등해야 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며 지금까지의 불교계의 관습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에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출가자도 점차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사망한 후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수용하는 사찰이나 스님도 점차로 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쇼다이지(證大寺)의 경우 성소수자들을 위한 묘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일본불교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안전지대임을 상징하는 '레인보우 스티커'를 배포. 이에 찬성하는 사찰들은 이 스티커를 산문이나 사찰 게시판에 붙여 성소수자들에게 사찰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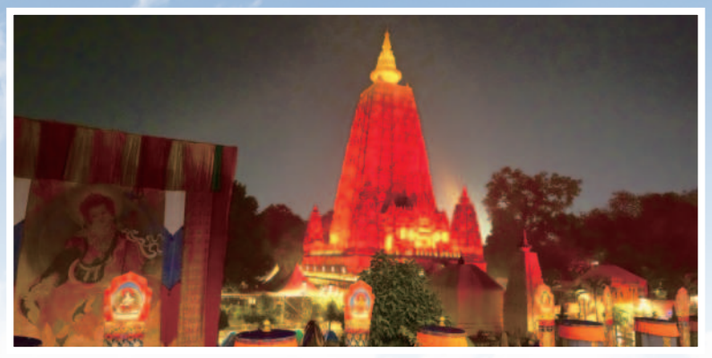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70만원 단 1회 파격가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4년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3월 24일 출발~3월 28일 도착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교토시내 숙박
▶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아라시야마 천룡사–동사–삼십삼간당–천태종 본산 연력사–나라 동대사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 동참금 : 19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4월 1일~8일(6박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10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
3월 22일~3월 26일(5박 6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 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 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금니로 새긴 부처님 뒷모습, 내면의 빛 품다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 '스스로 빛이 되어 II'가 대구 토포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해기 작가 개인전, 11월 13~30일
대구 토포하우스 제 1, 2전시실서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20점 선봬
부처님 뒷모습 통해 각자의 해석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금니선화로 현대 불교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이해기 작가는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토포하우스 제1, 2전시실에서 '스스로 빛이 되어 II'를 주제로 전시를 이어간다.

이해기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시대 사경 기법인 금니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불교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을 펼쳐왔다. 99.9% 순금으로 부처님의 존귀함을 표현한 작품들은 전통 불교화의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검은 비단과 감지 위에 금니로 세밀하게 그린 작품들은 금빛 선을 따라 시각적인 섬세함을 자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전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1997년 초기작부터 2024년 최신작까지 총 20여 점을 선보인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담은 뒷모습을 비롯해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와 관음보살을 그린 2002년 작 '수월관음도'와 금니세필 작업 초기 완성작인 1997년의 '지장시왕도'가 포함됐다. 특히 '지장시왕도'는 컬렉터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중앙 하단 화기 부분이 비워져 있어 특별하다.

이해기 작가는 매일 참선으로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몰두하며 작품에 정성을 쏟는다. 그의 작품들이 금빛의 섬세한 선을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이해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작품의 의미는 관객의 해석을 통해 완성된다"며 "작품을 마주한 관람객들이 부처님의 뒷모습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6회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진갑생 씨의 '삼광사 천태종 연등행사'.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에 진갑생 作 선정

410점 출품…김광주 씨 은상 수상
12월 14~24일, 한국갤러리 전시

제6회 천태사진공모전에서 진갑생 씨의 작품 '삼광사 천태종 연등행사'가 금상에 선정됐다.

천태종 문화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1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에는 이병윤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이성록 한사협 감독관, 김대중, 김문호, 김운식 씨 등 국내 사진작가들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은상에는 김광주 씨의 '구인사 대조사전 관람'이 선정됐으며, 동상에는 이형록 씨의 '구인사 영산재 바라춤' 등 세 작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은상 300만 원, 동상 각 100만원, 가작 수상자 10명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의 자연 △전통문화 △미풍양속을 비롯해 소백산국립공원 및 단양지역, 전국 천태종 사찰을 담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상작들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릴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불교와 한의학의 만남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
11월 23일, 웹엑스 비대면 개최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23일 오후 1시 '불교와 한의학'을 주제로 제22회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적 지혜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호흡의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배효상, 동국대)을 주제로 호흡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불교의 지혜를 통한 한의사의 화병 치료'(권찬영, 동의대)를 통해 지혜가 화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의학 의안'(김근우, 동국대)을 통해 불교적 마음챙김과 한의학적 접근이 심리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논평에는 불림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현도 스님(동국대), 윤종갑(동아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Webex으로 진행되며 미팅 번호(2553 617 7172)와 비밀번호(123456)를 입력하면 된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정현선 기자


'환지본처' 지광국사탑, 제 모습 찾다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고승 지광국사 해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석탑으로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고려 석조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일제강점기인 1911년 처음 불법 반출돼 유랑의 시간을 보냈고,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엔 포탄을 맞아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다. 비운의 문화유산 지광국사탑이 113년만에 원주 법천사지에서 제 모습으로 복원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에서 복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제 모습을 찾은 지광국사탑을 친견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제공=원주시

'서산 보원사지 석탑' 국보 승격 추진 본격화

11월 8일, 서산문화복지센터서
국보 승격 위한 학계 의견 수렴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가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산시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는 11월 8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부조상의 특징(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양식과 조성시기(엄기표 단국대 교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공예사적 고찰(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보존상태와 석재의 산지해석(이찬희 국립공주대 교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제7회 퇴옹학술상, 법장 스님·신희정 강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주최
11월 30일 시상식, 고심정사서
성철 스님 사상 주제 학술대회도


법장 스님


신희정 강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주최하는 제7회 퇴옹학술상에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과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가 각각 교리와 응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법장 스님의 논문은 티베트어 원전 '연기의 총의'를 분석해 자립논증파가 바라보는 십이연기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티베트 승가 대학 교재에 담긴 자립논증파의 십이연기 해석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 논문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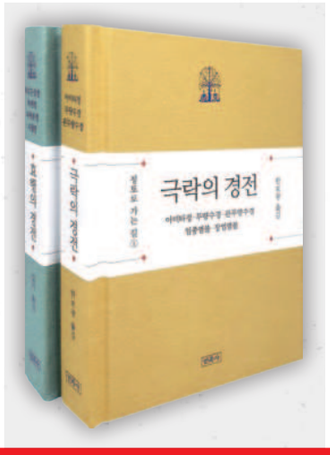
응용 부문에 선정된 신희정 강사의 논문은 불교의 마음체계를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특히 불교와 과학, 도덕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의 도덕 교육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퇴옹학술상 시상식은 11월 30일 부산 중앙동 고심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은 최연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점숙 퇴옹학술상 선정위원장이 심사과정과 배경을 보고할 예정이다.

시상식 후에는 '성철 스님의 불교사상과 선'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정현선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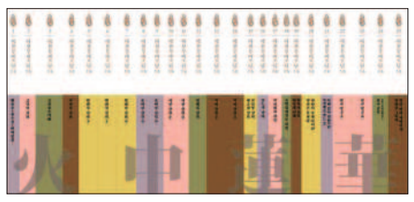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3~1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진리의 말씀(양장) 선물용 경전	석지현 옮김	민족사	6	위빳사나수행 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3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1)	비구 범일	여시아독	8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밝은사람들총서19)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4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8편수록*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	양장본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5	진짜 나를 찾아라(법정스님 미공개 강연록) 맑고향기롭게 30주년기념	법정	샘터	10	요가근본경전:하타요가프라디피카/요가수트라/바가바드기타	이태영 편역	여래

책세상

대강백 무비 스님 평생 공부 집대성하다



여천무비 스님 전집-화중연화
여천무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60만원(전 25권 세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저는 부처님 밥만 먹고, 부처님 뜻과 정신을 설명하는 일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처님을 볼 수 없는 오늘, 대중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의지할 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수많은 경전들, 그리고 방대한 경전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을 알려줄 스님들이다.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스님의 '공책'일 것이다. 대중은 스님이 공부한 그 공책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한 시대를 오롯이 대강백으로 살아온 스님의 공책 스물다섯 권을 만난다. 〈여천무비스님 전집 - 화중연화(火中蓮華)〉 전 25권이다. 전집은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의 평생 공부를 모아 25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 동안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간했던 29종, 33권의 도서를 재구성하여 25권으로 펴냈다. 위대한 불사다. 전집의 제목인 '화중연화'는 〈유마경〉의 구절 중 '화중생련화'와 같은 말로써, '불꽃 속의 연꽃'이라는 뜻이다. 즉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헤쳐 나가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단단한 불법의 지혜를 의미한다. 무비 스님은 "'화중연화'라는 말이 자신의 삶 8할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며 "전집의 제목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법화경〉 〈유마경〉 등의 경전과 〈임제록〉 〈직지〉 〈신심명〉 〈증도가〉 〈전심법요〉 등 선불교의 핵심을 담은 책의 강설서,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불교 명구 100 시리즈〉를 비롯해 법문 모음집 등, 한 권 한 권 모두가 새롭게 새기고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다. 아울러 절판되어 일반 독자가 구해볼 수 없었던 〈서장 강설〉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등의 책까지 모두 볼 수 있다.

초심 불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그리고 출가한 스님이 가장 처음 공부하는 〈초발심자경문〉부터 시작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등 전집에 수록된 경전들은 불교의 기초부터 선사들의 어록에 이르기까지 그 가르침의 깊이도 다양하고 공부의 난이도도 다양하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고, 그러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강설이기 때문에 전체의 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집의 각 책에는 첫 장 안쪽에 해당 책 주제의 강설 영상(또는 음성) QR코드가 있으며, 책의 겉면 뒷장 접힌 안쪽에는 책 소개 영상과 사진첩이 담긴 QR코드가 있다.

'여천무비 스님 전집-화중연화' 전 25권
각 출판사 출간 29종 33권 도서 재구성
〈서장 강설〉 등 절판 책도 다시 엮어내
불교 기초부터 선사의 어록까지 총망라
군더더기 없이 핵심 꿰뚫는 명쾌한 강설
"책 나오는 그날 그 책 안고 잘 겁니다"



흔히 불법(佛法)은 언어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나 문자를 떠나서는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선과 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종은 부처님의 심법이고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밝은 심법에 아름다운 문장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자 절옥보도(切玉寶刀)라 할 것이다. 이번 무비 스님의 전집은 선과 교를 겸수한 무비 스님의 밝은 심법과 반듯한 문장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전법이다. 대중이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스승의 정성어린 고귀한 판서다.

'강백'이라는 호칭은 스님들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을 말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스님을 부르는 말이다. 나이 또는 경력에 관계없이 오직 공부의 깊이만이 강백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다. 1958년 출가한 후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경전 연구에 매진해온 무비 스님은 '무엇이 불법인가?'라는 평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강 스님, 효봉 스님, 성철 스님 등의 문하에서 10여 년간 선승으로 정진하며 선원의 정신을 배우고, 관응 스님, 탄허 스님, 운허 스님 등의 스승에게서는 경전의 심오한 세계를 공부했다. 이러한 까닭에 무비 스님은 드물게도 선(禪)과 교(敎) 두 가지를 모두 겸수한 스님으로 꼽힌다.

스님은 1967년 제1기 역경사 양성 과정에 합격한 이래로 경전과 논서, 그리고 선어록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을 공부하고 이를 풀어내는 데 매진했다. 마승 비구가 전해준 한마디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개종한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이야기나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출가한 육조 혜능 스님, 그리고 스님 자신의 출가 인연처럼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경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비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2003년 큰 수술을 받은 후 생사의 고비를 넘긴 스님은 2004년부터 시작한 인터넷 카페 염화실(cafe.daum.net/yumhwasil)을 공부의 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2020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 '무비스님의 염화실 TV'를 통해 누구나(회원 가입 없이) 무비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전집 출간을 마주하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책이 도착하는 날 나는 그날 저녁에 그 책을 안고 잘 겁니다. 그게 제 소감입니다"라고 답했다.

저자인 무비 스님은 1943년 영덕에서 출생했다. 1958년 불국사로 출가해 1960년 여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 은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했으며,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을 받았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8년 5월에는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현재 부산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고 있으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수백 명의 스님과 재가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음 카페 '염화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인터넷 카페 '염화실'(2004년 개설)과 유튜브 채널 '무비스님'(2020년 개설)을 통해 '염화실TV'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다.

여천 무비 스님 전집-화중연화(火中蓮華)

1권	예불문 · 천수경 · 반야심경
2권	금강경 강의
3권	금강경오가해
4권	지장경 강의
5권	법화경 강의(상)
6권	법화경 강의(중)
7권	법화경 강의(하)
8권	유마경 강설(상)
9권	유마경 강설(하)
10권	서장 강설(상)
11권	서장 강설(하)
12권	임제록 강설
13권	직지 강설(상)
14권	직지 강설(하)
15권	신심명 강의 · 대승찬 강설
16권	증도가 강의
17권	전심법요 강설
18권	초발심자경문 강설
19권	왕복서 강설 · 법성게 선해
20권	사람이 부처님이다 · 당신은 부처님
21권	이와 같이 살았으면 · 보살계를 받는 길
22권	불교 명구(상)
23권	불교 명구(하)
24권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
25권	일곱 번의 작별인사 · 염화실 그림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참선, 결코 어렵지 않다”



일타 스님의
참선 잘하는 법
김현준 엮음
효림 / 6천원

〈선수행의 길잡이〉 수정 보완 출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참선할 것”
좌선 앉음새부터 화두타파까지 정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참선 수행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 줄 지침서가 나왔다. 〈일타 스님의 참선 잘하는 법〉이다. 책은 10여 년 전에 출간됐던 일타 스님의 참선 법문집 〈선수행의 길잡이〉를 보완하고 더한 것이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잡는 수행방법이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아서 자기 마음을 밝게 알고, 자기 마음을 자재롭게 쓰는 것이 선(禪)이다. 삶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잡아, 탐진치의 삼독심에 휘말리지 않고, 부처님이나 도인처럼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선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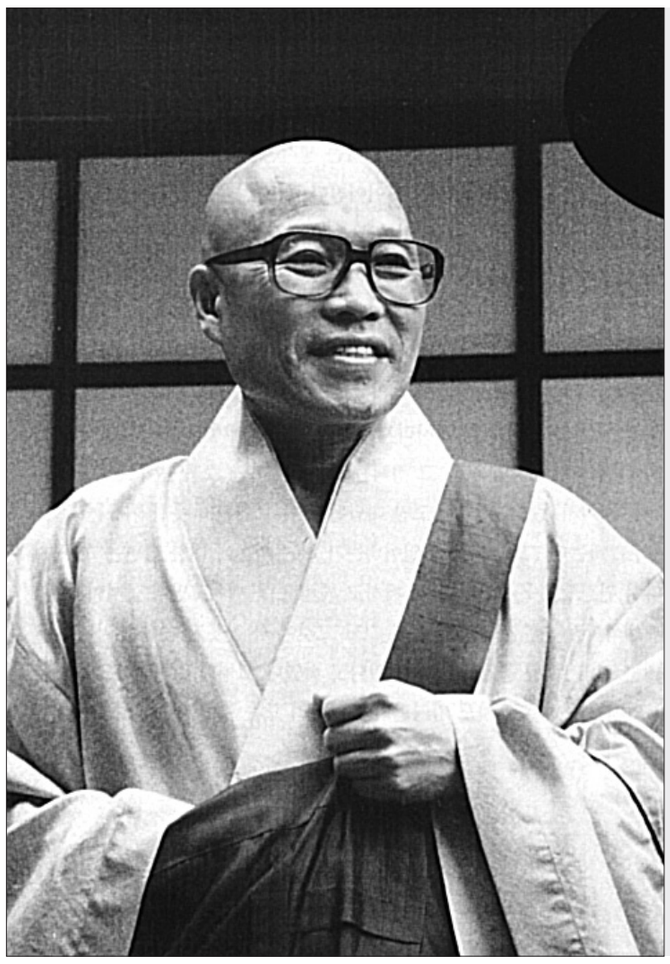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제1장 ‘앉는 법과 호흡법’에서 저자는 좌선의 앉음새에서, 좌선 전에 주의해야 할 몸가짐 몇 가지를 밝히고, 앉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의미를 덧붙여서 설하고 있다.

가령 두 손으로 법계정인을 맺을 때 “엄지손가락을 아주 살짝 맞대어라”라고 하였는데, “졸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떨어지고, 망상에 빠지면 두 손가락을 강하게 마주 대기 때문에 살짝 맞대라고 한 것이다”라며 그 까닭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왼발을 계속 위로 올리지 말고 두 발을 교대로 바꿀 것, 척추를 구부정하지 않게 할 것 등을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을 위해 의자에 앉을 때의 자세를 간략히 정리해 주고 있다.

호흡법을 밝힌 부분에서는 호흡의 불교적 의미를 대우주와 함께하는 생명력의 나눔이라고 설하면서 그 까닭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어서 단전호흡의 원리와 단전호흡법의 핵심, 스스로의 호흡을 헤아리는 데 집중하는 수식관(數息觀)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일러준다. 스님은 이 호흡법만 잘 익혀도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삶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제2장 ‘참선과 화두와 간화선’에서는 화두의 정의와 도인이 준 화두를 깨달으면 도인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됨을 밝히고, 우리나라에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화두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조주 선사의 무(無)자 화두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를 쉽게 일러준다.



동곡당 일타 스님은 1929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해 1942년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1946년 송광사 삼일암의 수선안거를 시작으로 일평생 참선정진 및 중생교화에만 몰두했으며, 오른쪽 손가락 12마디를 연비하고 1955년에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6년 정진하여 견성했다.
해인사 주지 · 조계종 전계대화상 · 조계종 원로위원 · 은해사 조실 등을 역임했고, 1999년 11월 29일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열반에 들었다.
저서로는 〈범망경보살계〉 · 〈법공양문〉 · 〈초심(시작하는 마음)〉 · 〈발심수행장(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자경문(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불교에 절입문〉 등이 있다.

△제3장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에서는 죽은 화두인 사구에 대해 먼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구는 본래의 화두 자체가 죽은 화두가 아니라, 참선하는 이가 잘못하기 때문에 사구로 바뀐다는 것이다. 화두에 물음표를 달고 계속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분별하여 화두의 답을 찾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쳐나가면 죽은 화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스님의 수행체험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활구참선법에서는 지극한 의심이 화두를 살아 있는 활구가 되게 하는 비결임을 밝히고,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옛 설화와 고승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화두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준다.

△제4장 ‘화두 간택과 화두 정진’에서는 먼저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한 다음, 불교 공부 모두가 도를 닦고 마음을 모으는 공부요, 하나같이 일념으로 나아가면 빨리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음을 간략히 설한다.

이어서 화두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참선을 하다가 화두를 바꾸어도 되는지, 화두를 바꾸어도 좋은 경우 등을 스님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리고 화두를 타파하면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과 그 화두를 있게 한 조사(祖師)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반드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분발정진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참선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70세의 나이에 7일 참선정진하여 도를 깨달은 노부인의 예를 들어 설한 다음,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참선을 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참선하는 그 시간 동안 오직 화두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대반야지혜(大般若智慧)의 빛이다. 이 반야지혜의 빛은 자신의 마음자리, 곧 자성심(自性心)을 보게 하고, 자성을 보게 되면 천지와 내가 한 뿌리가 되고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된다. 그러한 때에 내가 하는 바는 모두가 신통묘용(神通妙用)이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행이 된다.”

한국 禪茶 천 년의 맥을 짚다



선차
최석환 지음
불교춘추사 / 3만원

선차 태동부터 한반도 전래 과정 정리
기존 설 앞선 새로운 한국 전래설 소개

한국 선차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 〈선차(禪茶)〉는 저자가 20년 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라, 고려, 조선, 근대로 천 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선차의 맥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중국을 오간 것은 선차의 시작이 ‘달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선차의 세계는 한반도로 건너와 천 년 넘게 이어져 왔다. 책은 여덟 개의 장에서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차가 전개된 과정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이어져 왔는지 정리하고 있다.

책은 달마 대사의 법의가 정중종으로 전해진 내력과 사조 도신의 법을 이은 법랑선사와 마조 도일의 정맥을 이은 서당 지장이 신라의 도의, 홍척, 혜철 선사에게 전승한 내력을 밝히고 있다. 북종선을 이어간 상산 혜각 선사를 밝혀냈고,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의 뇌원차와 석옹 청공 선사로부터 임제 선맥을 이어간 태고 보우의 다맥과 조선 초기 매월당 김시습의 초암차 연월을 자세히 밝혔다. 선종사원의 다풍으로 양평 상원사 선덕인 의정 스님이 선원청규를 복원하여 선가로 이어진 백장청규의 정신을 계승해 국선차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차문화의 전래를 이야기할 때 신라 흥덕왕 때 대렴이 왕명으로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게 되어 한국의 문화가 시작됐다고 서술되어 왔다. 책 〈선차〉는 대렴 이전에 이미 신라에 차문화가 있었음을 새롭게 밝힌다. 명나라 만력에 편찬한 〈구화산지〉 8권에 기록을 소개한다. “금지차는 나무줄기가 속이 비어 작은 대나무 같다고 전하는데 김지장이 신라로부터 가져온 차 씨라고 전한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구법승으로 선차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는 무상 선사 이후 조주 선사가 나타나 ‘끽다거’란 화두를 남겼고, 송나라 때 원오 극근이 나타나 다선일미를 제창한 이래 다선일미가 바다를 건너 한국과 일본으로 전승되어 동아시아 일대에서 발전되어 갔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다산과 추사, 초의에 의해 한국의 차문화는 중흥기를 맞았다. 초의 선사가 햇차를 추사에게 보내자 추사는 고마움의 표시로 명선이라는 묵적을 초의 선사에게 전했다.

1장에서는 ‘잊혀진 선차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차의 연원을 설명한다. 선차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차 업계나 사찰에서 흔히 쓰던 용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록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래 전부터 사찰, 특히 선종사찰에서는 다반사로 행해지던 의례이고 수행문화였다.

심지어 ‘다선(茶禪)’이라든가 ‘보차(普茶)’라는 말에서도 수행과 차를 잇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 무상이 이미 천 년 전에 들고 나왔던 ‘선차지법’이란 말이나 조주의 ‘끽다거’ 혹은 원오 극근의 ‘다선일미’로 표현되는 선차정신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차’와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2장 ‘선차의 원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 달마의 차로부터 무상, 조주, 철감 도윤으로 이어진 선차의 모습들이다. 백운 수단의 화경청적이나 의천의 뇌원차, 태고 보우의 차향과 매월당 김시습의 초암차를 거론한 대목도 유의할 만하다.

3장 ‘한국의 선차문화’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선차 교류 모습을 두루 살피면서 중국 천태산에서 선차 생활을 개척한 고구려 출신 파야 선사의 역할을 소개한다. 거기에 화엄선차를 신라에 전한 원표 스님과 성주산문을 일으킨 무염 국사의 존재도 언급하면서 선차 동류의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4장 ‘선종사원의 다풍’에서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 선차문화 전승 활동과 선차 역사를 정리한다.

5장 ‘선종다례 의식’과 7장 ‘선차행다의 미학’, 8장 ‘차와 음식의 만남’은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온 헌다의례와 선차표연의 모습을 통해 현재 차인과 다승들의 실제 차생활과 차문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책은 새로운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방치되었던 무상 선사의 사리탑을 저자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2023년 겨울 사리탑 앞에서 한·중 공동 헌다의식을 하며 무상 선사를 기린 것과 파야 선사가 천태 지의 대사의 법통을 이어 다선일미를 실천한 것, 그로 인해 한국 선차의 맥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단오날 천관대에서 평화의 다례를 개최해 신라의 원표 대사가 수행했던 푸젠성 닝더의 천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게 했다는 것 등이다.

박재완 기자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大講伯),
여천무비 스님이 펼쳐놓은 장대한 교학(敎學)의 바다!



여천무비스님 全集 (전 25권 출간)
대중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버벅대는 걸음에 힘을 실어주어,
모든 이들이 환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정토 연화세계에 다가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일대쾌거!

1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2 금강경 강의
3 금강경오가해
4 지장경 강의
5 법화경 강의(상)
6 법화경 강의(중)
7 법화경 강의(하)
8 유마경 강설(상)
9 유마경 강설(하)
10 서장 강설(상)
11 서장 강설(하)
12 임제록 강설
13 직지 강설(상)
14 직지 강설(하)
15 신심명 강의·대승찬 강설
16 증도가 강의
17 전심법요 강설
18 초발심자경문 강설
19 왕복서 강설·법성게 선해
20 사람이 부처님이다·당신은 부처님
21 이와 같이 살았으면·보살계를 받는 길
22 불교 명구(상)
23 불교 명구(하)
24 무에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
25 입곱 번의 삭발인사·염화실 그림자



여천무비(如天無比) _ 1958년 불국사로 출가하여 여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을 받았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고 있으며, 카페 〈염화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치고 있다.

여천무비 스님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일시 2024. 11. 23.(토) 오후 2시
장소 범어사 보제루
주최 · 주관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문의 전화 051) 508-3043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수행의 향기 세간을 청정하게 하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不在詩書三萬軸(부재시서삼만축)하고
非關經論五千函(비관경론오천함)이로다.
言前已泄靈潛意(언전이설영잠의)어늘
文字何勞更指南(문자하로갱지남)하리오.

시서 삼만 축에도 있지 않고
오천 함의 경론도 관계없도다.
말 앞서 이미 신령스러운 뜻 드러났거늘
문자로서 어찌 수고로이 지남을 삼으리.

삼동결제를 하는 안거 대중이여!

전국의 선원에 많은 수선납자가 모여 생사대사를 끊고자 하는 意氣(의기)가 충만하도다.

結界(결계)가 원만하고, 대중이 六和(육화)로 화합하며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모여 정진하니 최상의 수행 대중이 이루어졌도다. 여기에 수행을 돕는 단월의 정성이 더해지니 삼동결제를 장애 없이 성만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도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산문 출입은 저절로 끊어지고 세간의 증애와 시비도 저절로 사라졌도다.

수행 대중의 정진 향기는 무풍한송로의 청량한 솔바람처럼 세간의 모든 폭력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일승교를 흐르는 맑은 물처럼 지구촌의 모든 오염을 청정하게 하리라.

이것이 수행 공덕을 널리 법계에 회향하는 일이니 수행 대중은 모두 안거를 성만하여 법계를 청정하게 해야 하리라.

金色秋天月(금색추천월)이
光明照十方(광명조시방)이로다.
衆生心水淨(중생심수정)하니
處處落淸光(처처락청광)이로다.

황금빛 가을 하늘의 달이
광명을 시방에 비추네.
중생의 마음 맑은 물 같으니
곳곳에 청정한 빛 내려앉네.

"결제 기간 동안 화두를 투관하라"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



옛날 어느 노보살이 정진을 열심히 해 장래가 촉망되는 스님에게 초암(草庵)을 지어주고 20년 간 시봉을 잘 했습니다. 어느 날 노보살은 스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예쁘게 단장한 딸을 초암에 들도록 했습니다. 딸은 스님에게 상(床)을 잘 차려 공양하게 하면서 무릎 위에 올라앉아 "지금 어떠합니까?"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고목한암(枯木寒岩) 냉난부지(冷煖不知)라. 너는 마른나무 가지이요 난 찬 바위라 찬지 더운지를 모르겠다"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노보살은 "내가 사기꾼 도둑인 줄 모르고 20년이나 시봉하다니 잘못됐다"며 스님을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파소암(婆燒庵)'이라는 공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스님은 무엇이라 대꾸하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노보살은 암자를 불태우지 않았을까 일러주는 화두입니다. 〈중략〉

한국불교는 예로부터 삼동결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역대 선조사들은 모두 이러한 결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후학들에게도 그 지남(指南)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우기(雨期)가 계속되는 인도와 달리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한국불교는 동안거가 만들어졌고 이 기간에 산내암자 스님들도 본사에 함께 모여 참선, 염불, 간경 등 소향대로 정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종단은 사설암자에서 혼자 수행하는 종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올바른 심지(心地)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본분사라 하겠습니다.

참선에 주력하는 일뿐 아니라 염불, 간경, 기도하시는 분들도 결제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용맹정진한다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파소암'의 공안처럼 화두를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방법입니다. 결제 기간 동안 화두(공안)를 투관(透關)하겠다는 확실한 신념과 깨달을 수 있다는 원력을 세운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종양은 도려내도 惡言 씻기 어렵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卽下契合頓悟出 億劫胸滯物消却
石人海底柴運搬 木女十字街賣餠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시고 아시겠습니까?
즉하에 마주보는 여기서 바로 계합되어 크게 깨달아 뛰어나면
억겁동안 가슴에 쌓이고 막힌 흉체물이 흔적 없이 씻어 없어지리라
돌사람은 바다 밑에서 땔나무를 운반하고 나무 여자는 십자 거리에서 떡을 파는도다

금일 결제대중은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을진댄 또 이르리라.

금일 대중이 갑진년 동안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해인사 비구 학산 대원은 이 몸뚱이 위에 항상 무위(無位) 진인(眞人)이 앞에 나타나고, 청정한 대중은 법계로서 가람을 삼고, 한가지로 모든 대중은 九十日內 안거정진 하는데, 그 가운데는 금강과 같은 우리를 밟아 부수고, 또 거칠은 쇠밤송이를 씹어 삼키며, 꿈가운데 佛事를 지어서 거울속에 마구니를 항복받으니, 身口意 삼업이 깨끗하고 六根이 밝고 깨끗해져서,

행주좌와(行住座臥) 일체처에 모든 허물이 없으며, 여래의 일백사십대원에 계합하여서 마침내 삼보의 종자가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니,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닦아 증득해야만 이와 같은 안거가 참대장부요, 이것이 참으로 뛰어난 출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 한방울도 녹일 수 없습니다. 출가문중에서 이럭저럭 시비(是非) 다툼만 하고 적당히 안거만 채운다면 어느 시절에 화두를 타파하여 요사인(了事人)이 되겠습니까?

이륙시중(二六時中)에 화두가 끊어지면,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집행하는 날을 받아 놓았다면 편안한 잠이 오겠습니까? 〈중략〉

금일 산승은 不然이라.
著言컨대 頌曰
師三問侍 未會
我當時奪取拄杖
一點掃却棄拄杖
拍掌喝大笑出去하리라
師가 세 번 물어도 侍僧은 알지 못한다 하니
내가 당시에 있었다면 주장자를 빼앗아 한 점을 쓸어버리고 주장자도 던져 버린 뒤에
박장 할하고 크게 웃고 떠나가리라

爲甚麽如此
腫瘍刀盡 惡言難消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고?
종양은 칼로 도려내면 다하지만
악한 말은 씻기 어렵다

11월 15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종단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집착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日落西山天地暗(일락서산천지암)
月出天地上下明(월출천지상하명)
石佛說法金魚聽(석불설법금어청)
靑山淸曲流水舞(청산청곡유수무)

해가 지니 서쪽 하늘이 어두워진다.
달이 뜨니 하늘과 땅 상하가 밝아진다.
돌부처가 설법을 하고 금샘 금어가 듣는다.
청산에 맑은 곡조요 흐르는 물이 춤을 춘다.

해가 지니 자연히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달이 뜨니 하늘과 땅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다. 금정산 계곡 곳곳에 돌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고 금정산 금샘에 금빛 물고기가 법문을 듣는다. 푸른 청산 그대로가 맑은 곡조요 계곡을 흘러 내려가는 물소리가 춤을 추고 있다.

산천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흘러가는 물소리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들 천년만년 오랜 세월을 온갖 풍상 속에서 자태를 이어온 바위들이 그대로 설법하고 설법을 듣는다.

부처님의 설법을 자연에서 들을 줄 안다면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가 극락정토이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맑게 깨어서 자연을 바라보면 모두가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설법 아닌 것이 없다.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마음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다만 가고 올뿐, 마음은 늘 그대로 여여합니다.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다. 몸이 가고 몸이 올뿐 마음은 한 발짝도 옮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하늘에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지만 하늘은 늘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 바탕은 텅 비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고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시끄러운 시장통을 거닐어도 마음은 늘 여여해서 조금도 움직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보이는 밖의 경계는 순간순간 바뀌고 달라져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도 근본 마음 바탕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無心(무심)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이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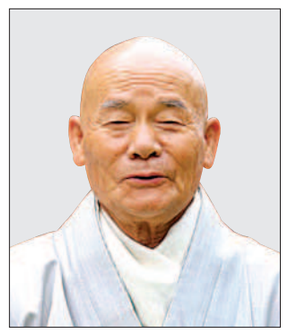
過去如空(과거여공)이요
知處迷宗(지처미종)이네.
과거는 마치 허공과 같고
알았다고 하면 근본을 잃어버리네.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나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 망상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붙들려고 하는 한 집착에 떨어지지만 나라고 하는 眞我(진아) 마저도 놓아 버리면 곧 解脫(해탈)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뇌도 없고 깨달음이 와 있습니다. 執着(집착)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응관! 부처님의 화두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시원하게 터진 하늘 끝 모를 깊이 둥실 달이 밝았습니다.
아, 웅장하다. 이 생명덩어리!
이 새벽, 대종소리, 온통 한 덩어리 이 물건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
웅장하다, 과연 쉬어지네.

눈 뜨면 시방세계, 눈 감으면 이~뭘까!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 前, 이 구슬, 만고의 휴식처
저절로 굴려지고 있나?
머리, 머리, 원동력, 찬란한 생기
아~ 벗어났네! 만고의 이 자유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대자대비 사랑의 한 덩어리 일색 에너지
대중시봉, 주고 베푸는 열린 마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이놈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는 복력이더라.
이 공부의 첫 단계가 이 至心이요, 이 보시입니다.
육도문중에 행단이 거수(六度門中 行檀居首)
수행자 일번지는 베푸는 마음, 보시!
대중을 부처님으로 시봉하자.

목탁소리 이놈이요, 대종소리 이놈이요
시심마(是甚麽)요, 관세음보살이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
그때그때 새롭게, 새롭게!
이 몸은 피고 지고 법계의 속성입니다.
마음이 개운해졌나? 공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
보고 듣는 이놈, 엉뚱한데 헤맬 일이 없습니다.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구름 걷힌 푸른 하늘 이뭘까?가 답입니다.
이 물건 놓치면 진기 빠진다.
이탈하지 마라. 하늘땅이 등 돌린다.
다 제쳐두고, 도방하(都放下)하고 결심한 이 안거
이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난 셈치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이보다 큰 발심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 한 덩어리 이 물건
바탕이 확실해지면 코 꿰일 일이 없더라.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이놈이요, 유아독존이요, 내 책임이더라.
예불할 수 있을 때,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밥맛 있을 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을 때가
하늘이 이 하늘이고, 땅도 산도 바다도 모두 이 놈입니다.
지심귀명례, 이 자리, 지심이요, 응관(應觀)입니다.
온통 산하대지가 일색 에너지로 둘러꺼지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체껴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니 이놈이요, 꿈틀거리니 이 물건이로다.
놀랍다, 이 물건이여, 이 맛이여!
하늘땅을 안고 있는 대적(大寂)삼매 온통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응관! 부처님의 화두입니다.
나무 가지가지 끝끝마다 만경창파 물결마다
끝 파도요, 응관법계성이요, 절절이 감동입니다.
대자대비 사랑으로 팔을 벌려 다 안아주는 부처님의 화두, 응관
거룩하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예불할 때마다 맹세합니다. 걸음걸음 맹세합니다.
상어반야불퇴전(常於般若不退轉)
퇴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뭘까? 〈하략〉

“고려 읍치 사찰 전형…사적 가치 충분”

주목! 이 논문

고려시대 읍치(邑治) 사찰의 전형, 안성 봉업사지

안성 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이 봉안됐던 진전사찰이었다.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봉업사지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1월 7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요근 서울대 교수는 ‘고려시대 읍치(邑治) 사찰의 전형, 안성 봉업사지’를 통해 읍치 사찰로서 면모를 조명했다. 이 논문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고려시대 봉업사는 왕실의 진전사찰이자 읍치 사찰로 역할을 해왔다.

문헌 기록 통해 본 봉업사

봉업사가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헌 기록으로는 〈고려사〉를 들 수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안동에 피난했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죽주의 봉업사를 들러서 그곳에 있던 태조의 진영을 배알했다고 한다. 그 시점은 공민왕 12년(1363년) 2월이었다. 봉업사에 관한 문헌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봉업사가 태조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흔치 않은 지방 사찰이자 공민왕이 직접 방문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봉업사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강조됐다. 한편 조선 전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청주를 떠난 공민왕이 이곳에 들러 태조의 진영을 참배하였으나, 사찰은 사라지고 석탑만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조선 초기 어느 시점에 봉업사는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죽주는 오늘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일대를 관할 영역으로 편제된 고을이다. 죽주의 읍치 지역은 오늘날 죽산리에 있었으며, 봉업사지 또한 죽산리에 그 터가 있다. 사역의 핵심 공간에는 현재 봉업사지 오층석탑과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1997~1998년과 2000~2001년에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봉업사지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명문 기와로 분류된 기와의 개체수가 514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중에는 태평흥국(太平興國, 976~984년), 준풍(峻豐, 960~963년), 옹희(雍熙, 984~987년), 건덕(乾德, 963~968년) 등의 연호가 새겨져 있는 기와가 다수 확인되어, 고려 초기 광종 연간(949~975년)에서 성종 연간(981~997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건물이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명문 기와 중에 가장 연대가 윗 시기로 올라가는 사례는 대중(大中) 8년명 명문 기와이다. 대중 8년은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해당하므로, 대중 8년명 명문 기와의 발견은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를 중심으로 한 봉업사의 창건 연대를 통일신라 때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華次寺’(화차사)가 새겨진 신라 하대의 명문 기와와 같은 시기의 목탑지 및 금당지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오층석탑 일대의 중심 사역은 신라 때도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차사’는 당시 그 사찰의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고려 건국 이후 광종 연간 즈음에 오층석탑 일대에 대대적인 사찰 건축의 흔적이 확인된다. 사실상 새로운 사찰의 창건으로 여겨지며, 이것을 봉업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광종 때 건축 당시에는 새롭게 금당이 들어서고 그 앞에 오층석탑이 세워졌으며, 기존의 금당지에는 강당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층석탑 일대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 중에는 성종 연간(981~997년)에 해당하는 유물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광종 연간 이후에도 성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찰이 증축 또는 개축됐음을 알 수 있다.

봉업사의 추정 진전구역은 오층석탑이 위치한 중심 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모두 7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각 건물지는 중심 축선이 중심 사역의 건물지들과 일치하였다. 이곳에서는 화차사와 능달 등이 새겨진 명문 기와, 그리고 준풍, 건덕 등의 연호가 새겨진 명문기와 등이 확인되었다. 청자 등 출토 유물을 고려하면 고려 후기까지도 사용된 건물지로 판명되었다. 다만 주변부로 조사가 추가로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민왕 찾아와 태조 진영에 참배
고려 왕실 진전사찰로서 위상 커
교통요충지 죽주 邑治사찰 역할도
寮司, 비보사찰로도 활용 추정돼

봉업사는 고려 초기보다, 구체적으로는 광종 연간에 창건됐고, 이후 크고 작은 중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업사지에서는 신유(辛酉), 무오(戊午), 병진(丙辰). 기사(己巳), 갑술(甲戌) 등의 연도가 실려 있는 명문 기와들도 출토됐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태조 진전사원으로서 기능도 광종 연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진전구역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진전구역의 구조와 배치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며, 진전구역의 창건 시기도 광종 연간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영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봉업사를 진전사원으로 설정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서 진영을 둔 사찰로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봉업사는 고려 광종 연간에 현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창건된 큰 규모의 사찰로서 운영되다가, 조선 전기 어느 때 폐사된 사찰로 이해할 수 있다. 봉업사지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통일신라 때는 사찰의 명칭이 봉업사가 아니라 화차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작 연대가 8~9세기로 여겨지는 출토 기와에서 화차사 명문이 봉업사지 오층석탑 일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읍치 사찰의 전형

봉업사는 태조 왕건의 진영을 모신 진전사원이자 죽주의 토착 향리 세력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 사찰이다. 그와 같이 뚜렷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한 문헌 사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문헌을 통하여 봉업사의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사역의 범위나 건물의 배치 등은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고려시대 읍치 사찰로서 봉업사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봉업사지는 충분히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읍치 사찰과 관련해서는 고려시대 읍치 경관에 관한 근래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지방 고을 읍치 공간의 주요 경관 요소로 고을의 핵심 공간에 해당하는 관아와 객사, 읍사 등을 먼저 들 수 있고, 그 외에 향교, 읍성, 읍치 배후성, 읍치 사찰, 노거수(老巨樹), 역참, 원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공간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고을들은 최근까지 또는 현재도 해당 위치에 공공시설이 자리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여말선초에 혁폐됐거나 조선시대 또는 식민지 시기에 읍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고을의 경우에는 고려 때의 주요 경관 요소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미 도회지로 변모한 지역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의 고을에서는 마을 이름으로나마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고려시대 죽주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주요 중심지인 남경과 충주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경유지에 있었던 고을이다. 조선의 죽산도 도읍인 한양과 충주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경유지에 해당했다. 이 교통로는 충주를 지나 경상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교통로였다.

고려시대에는 고을 읍치 공간에 불교사찰이 위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와의 큰 차이점이다. 수도인 개경의 내부에도 수십 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지방 고을의 읍치 일대에 다수의 사찰이 건립된 점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도 지방의 옛 고을 읍치 터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석탑이나 불상 등 불교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이 유물들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읍치 공간에 있었던 사찰에 해당한다.

이 사찰들은 신앙 공간으로서 본연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여행객을 위한 숙식 제공의 기능도 그중 하나였다. 그 밖에도 고을 차원의 각종 불교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고을 읍치 지역의 지세나 자연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기능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려시대에는 고을 읍치 내부 또는 읍치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불교사찰이 건립됐으며, 이와 같은 사찰들을 읍치 사찰 또는 도회지 사찰로 지칭할 수 있다.

죽산 지역에는 읍치 사찰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층석탑과 당간지주가 남아있는 봉업사지는 관아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 봉업사는 고려 태조의 진영(眞影)을 보관한 진전사원이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을 갔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주를 지나 태조의 진전에 참배했던 곳이다.

입지적인 면에서 봉업사지는 읍치의 핵심 구역과 가까이 위치한 전형적인 읍치 사찰로서, 하천 범람에 방비하기 위한 비보사찰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죽산천 북안에 위치하여 죽산천의 범람으로부터 죽주 읍치 지역을 방비하는 기능을 지닌 사찰이다. 읍치 사찰의 상당수가 하천에 위치해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읍치 지역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면, 봉업사지는 그러한 입지를 지니면서 현재 그 면모가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현존하는 고려시대 읍치 사찰 유적의 전형으로서 봉업사지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역의 범위와 내부 구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더욱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요근 서울대 교수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㉒ 경북 의성 등운산 고운사

▶한줄 요약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다. "의성 고운사 명부전을 몇 번이나 참배하였는가?" 물론 염라대왕이 서산 개심사 명부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싸리나무 기둥 등도 언급한다. 그러나 고운사 명부전을 가장 영향력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고운사가 '해동제일 지장도량'으로 지장보살 영험 성지이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이 묻는다 "고운사 명부전을 참배했는가?"

고운사 와서 글 아는 체하지 말라

경북 의성 고운사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다. 현재 안동, 의성, 영주, 봉화, 청송 등의 약 60개 사찰이 고운사 말사로 소속되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에는 직할교구(총무원 소속)를 포함하여 전국에 25개의 교구본사가 있다. 그리고 그 교구본사에 소속된 사찰은 모든 3000여 곳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교구본사는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도에 비유하고, 교구본사에 소속된 사찰인 말사는 도에 소속된 군이나 시에 비유할 수 있다.

설화탐사를 하는 데 갑자기 교구본사니 말사니 말하는 이유는, 고운사는 교구본사인데도 너무도 한적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한적한 사찰인가 하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과 같은 교구본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의 사찰 입구는 사하촌의 가게들이 즐비해 있지만, 고운사 입구에는 사하촌은커녕 작은 구멍가게도 없다. 자동차로 20여 분 단촌면으로 나가야 식당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근래에 안부를 나눈 지인도 그런 경험을 언급하였다. 저 멀리 부산에서 일행과 함께 고운사로 향하였다. 고운사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일행은 이왕이면 고운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50여 분을 달려 고운사 앞에 도착하였다. 그다음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해보시라.

고운사는 깊은 산중에 있는 절이라 공부하기에는 참으로 적당한 도량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부하는 이들이 많아 찾아왔다. 이에 전해지는 말이 있다. "고운사에 와서 글 아는 체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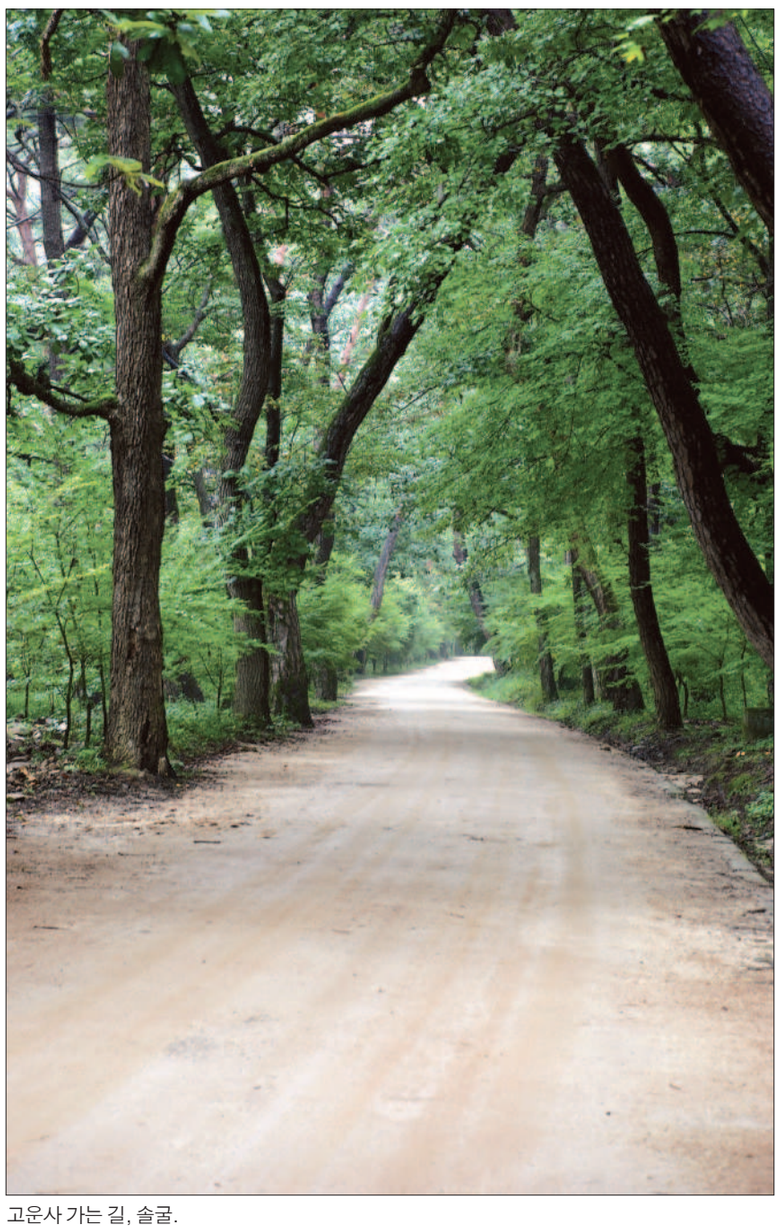
'高雲寺'에서 '孤雲寺'로

필자가 처음 고운사를 찾아갔을 때가 2001년 11월 중순이었다. 그 당시 뚜벅이 순례객이었던 필자는 안동에서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고운사에 갔다. 종점인 고운사에 내리자 고요함이 밀려왔다. 우리 두 명뿐이었다. 절로 들어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 길은 좌우로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어 '솔굴'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지금은 절 입구에 '騰雲山 孤雲寺'(등운산 고운사) 현판이 걸린 커다란 산문이 있다. 산문에서 약 500m 걸어가면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에도 '騰雲山 孤雲寺' 현판이 걸려 있다. 등운은 '구름을 타고 오른다'는 뜻이다. 고운은 고운(孤雲) 최치원(857~?)에서 왔다. 일주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계곡 위에 지은 전각인 가운루(駕雲樓)가 있고, 그 옆으로 우화루(雨花樓)가 있다. 가운은 '구름을 타다'는 뜻이고, 우화는 꽃이 비처럼 흩날리다, 꽃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가운루와 우화루를 처음 세운 이가 최치원이다. 다음은 1918년 세운 〈고운사사적비〉의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았다.

676년(문무왕 16년) 의상 스님(625~702)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사찰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681년(신문왕 원년) 웅장하고 봉우리와 계곡이 아름다운 등운산에 절을 창건하고 고운사(高雲寺)라 이름하였다. 이후 고운(孤雲) 최치원은 여지 스님, 여사 스님 두 분과 함께 가운루와 우화루를 세웠다. 그리고 사찰 이름을 고운사(孤雲寺)로 바꾸게 되었다.

최치원은 유교, 불교, 도교에 이해가 매우 깊은 신라의 학자(?)였다. 옛글에 의하면,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지리산 등지를 돌아다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고, 그가 머물던 집에 신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그의 흔적만 사라졌다 한다. 입산 후 어떻게 살았는지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야산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에 고운사의 불사 공덕으로 그의 호를 따라 高雲寺(고운사)에서 孤雲寺(고운사)로 바뀌게 된 사연은 보통 불연(佛緣)이 아니다. 현재 고운사 산문에 이르기 전 오른쪽에 '최치원 문학관'이 있고, 해마다 최치원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고운사 가는 길, 솔굴.

석가모니불 아니라 약사여래불

1992년도에 완공된 대웅보전 옆에 약사전이 있다. 약사전 안에는 약사여래불을 모시고 있다.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이라는 이름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상은 9세기의 특징적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단다. 〈고운사사적비〉에 의하면, 신라 말의 고승인 선각국사(先覺國師) 도선(道詵) 스님(827~898년)의 발원으로 약사여래불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9세기라는 추정에 최치원과 상관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2001년 필자가 고운사 약사전을 참배할 때, 불교 문화를 보는 눈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 당시 고운사 약사전 앞에는 '고운사 석조 석가여래좌상'이라는 문화재청의 안내문이 있었다. 즉 약사전에 모신 부처님은 약사여래가 아니라 석가모니불이라는 것이다. 선정인과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니, 수인으로 보면 석가모니불이다. 그런데 불상 옆에는 '수인으로 부처님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 학자들의 주장이다'라는 글이 있었다. 그리고 고운사 측에서는 약사여래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현장에서 불교 문화를 접한 필자는 참으로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가령 선정인과 항마촉지인을 한 경주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불로 대부분 주장하지만, 아미타부처님으로 보는 이도 있다. 지난 호에 언급한 영주 부석사 아미타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수인이 부처님을 구분하는 하나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



고운사 우화루 호랑이 벽화.

여느 교구본사보다 한적한 사찰
최치원 불연 담긴 사찰명 눈길
호랑이 벽화 보며 참회 마음 지녀



고운사 약사전 약사여래.

고운사 측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으니, 2010년 8월 25일 고운사 약사전 부처님은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약사여래라는 명칭은 빠져 있다. 대부분 약사여래는 선정인을 한 손 위에 약그릇(약합)이 놓여 있다. 그런데 고운사 약사불은 약그릇이 없다. 고운사 약사불을 약사불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약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약그릇이 없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그 옛날 면허 없이도 아픈 사람을 고쳤던 이가, 면허를 요구하는 시대에 와서 무면허 약사가 된 경우라고 할까나.

고운사, 해동제일 지장도량

명부전에는 염라대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합하여 열 분의 재판관인 시왕(十王)이 자리한다. 사람들이 죽으면 저승에 간다고 한다. 저승은 명부(冥府)라고도 한다. 명부는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다음 생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곳이다. 저승에서 재판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열 번까지 열린다. 그래서 열 분의 재판관이 있다. 다섯 번째 재판관이 염라대왕이다. 염라대왕 앞에는 업경대(業鏡臺)가 있다. 이승에서 지낸 모습이 업경대에 그대로 나타난다. 또 업칭(業秤)이 있다. 재판 마지막에 업(業)의 잘잘못을 재는 저울(秤)이다. 보통 아홉 번째 대왕에게 있다. 오늘날 사람을 못 믿어 AI(인공지능)가 판결해야 한다 생각하듯이, 옛사람도 시왕마저도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였나 보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업칭으로 잰다. 여러 재판을 통해 정리한 서류를 업칭으로 업의 무게를 재어 다음 생이 정해지는 것이다.

업경대와 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저승이 융통성이 전혀 없는 곳은 아닌 듯하다. 지장보살이라는 변호사도 있고, 염라대왕도 중생을 위한 나름의 특권이 있다. 그래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다. "의성 고운사 명부전을 몇 번이나 참배하였는가?"

물론 염라대왕이 서산 개심사 명부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싸리나무 기둥 등도 언급한다. 그러나 고운사 명부전을 가장 영향력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고운사가 '해동제일 지장도량'으로 지장보살 영험 성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부전을 참배하였더라도 늘 조심해야 한다. 우화루 벽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그 호랑이 눈은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마치 눈으로 말하는 듯하다. "명부전에서 참회한 마음 잘 지니도록 내가 늘 지켜보리라."

〈불교학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8호 | 15 | 전면광고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조정 가능)

010-2847-6289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 문전천황 기도도량
- 약 8천평 15억원

054-972-1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찰 인근 주택 안내

김제시 금산면 모악14길 43
금산사 인근 주택

- 임야 177평, 대지 195평
- 안채 28.3평, 창고17.6평
- 추가 활용 부지 약 1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5008-11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경남
- 종교부지 : 300평
- 대상사찰 : 26.6평
- 사찰부지 : 306평 총 : 632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8000만원

010-2993-3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7000만원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 5300평 자연녹지 (현재 인법당 있음)
- 평당 10만원(가격 절충)

010-6319-8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동래구 온천3동 광혜병원옆
- 포교원 3층 약50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스님방
- 전세 1000, 월세 70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553-5001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부산 경남 울산·경북 경주 지역 사찰전문부동산

- 이 지역 사찰 매도하실 분이나 사찰 구하시는 스님 연락주세요. 거래 많이 이루어 집니다.
- 사찰직방(사찰, 포교당 매매 전문)

NAVER 블로그 사찰직방 검색

010-7348-3140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사유지 포함 500평 사용
- 주차 10대, 건평 68평
  1층 요사 42평 방 4개, 화장실 3개
  2층 대웅전 26평, 식당 2개,
  실외 화장실 1개, 산신각 6평, 난방 심야전기,
-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 가능
- 시가 이하 6억 5000만원 급매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 대지 : 300평, 임야 : 2700평
- 건물 : 법당 산신 용왕 요사채 넓음
- 전망 최상, 약수물
- 가액 : 2억 7500만원

010-9127-53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시장옆 2층
- 30평, 보증금 없이 월 65만원
- 공양주 부전 처사분
- 일할분 쓸분은 상담
- 결혼할분 서울 명동결혼

직통 010-5481-141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토 지 안 내

- 위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 목 / 발 목 통 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08호 | 16 | 전면광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선禪 갤러리 작품실

수강생 모집

탱화 불화 ⇨1년 과정 ₩400만원(주2회)
선화 [달마도 관음도 동자도] ⇨3개월 과정 ₩100만원(주2회)
＊요일과 시간(2시간) 선택 자유＊

한국전승문화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11 (4층)
선禪 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0 (1층)
(02) 722-3459 (010) 4943-3459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화장실 등 사찰 수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 허리병 고치는 법
• 만병을 고치는 법
• 배울 분 받을 분
• 바로 해결되는 비법
• 54년 전통

010-3829-7582

도심 포교에 원력을 가지신
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자격
갖추신 60세 미만 스님
연락 주십시오.
비구니스님 환영
정허 합장
010-8707-3490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영적으로 고통받는
기도비구니 스님 두 분 혹은
보살님 두 분 구함
010-8298-3802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 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 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 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 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 시험사 여부
• 생업 가정 흥쇠 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 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 구체 사안)
• (상대 정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 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 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 기도) 효과 유무
• 효과 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 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 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 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 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 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정가 12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6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단성 보장



최종판
효사비결
"저는 여러분의 기대와 효과성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한국육임학회
WWW.TAOTEMPLE.NET
TEL : 02-567-3850

정가 3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 월요일 14시 대전 화요일 14시 전주 수요일 14시 광주 목요일 14시 부산 금요일 14시 대구 토요일 14시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 증세의 경·중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㉒ 茶의 약리적 효능

茶, 치병 방편으로 활용되다

늦가을 승주의 차밭에는 차 꽃이 분방한 향기를 드날리고 있을 것이다. 이 꽃을 통해 고상하고 아름다워 차의 품색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차는 사람을 이롭게 한 영초(靈草)라 여겼는데,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에 "(차의) 기미는 쓰고 달며 미한한데 독이 없다. 차는 쓰고 냉하므로 음중에 음이다(氣味苦甘 微寒無毒 茶苦而寒 陰中之陰)"라고 하였다.

쓰고 냉한 차의 기질은 상기된 기운을 내리고 흩어진 기운을 거두어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차의 이로움을 삶에 활용했던 사람들은 삶에 여유와 담박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차를 곁에 두고 즐겼으니 이 흔적들은 바로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차문화의 흐름을 형성하게 만든 요인이다. 어찌 보면, 차의 약리적 효능을 수행과 양생에 응용했던 것인데, 이 바탕에는 차가 병을 치료하는 약의 개념이었음을 드러낸다.

간혹 차와 다른 약재를 섞어 두통, 기허(氣虛), 설사를 치료하거나 소변, 대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차의 응용법은 특히 심신이 극도의 긴장 속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삶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매개물로써 그 활용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겪는 변비, 두통, 기허, 설사 등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책으로, 적극적인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차를 매개물로 현대인이 겪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설사, 두통, 기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안은 명대 왕상진(王象晉, 1561~1653)이 편찬한 〈군방보(群芳譜)〉 '뇨치방(療治方)'에서 제시된 것이 요긴한 정보라 여겨진다. 그의 기허와 두통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기가 허약하고 두통이 있을 때 이른 봄에 만든 차를 가루로 만들어 (이를 잘)개서 고(膏)를 만들어 토기 잔에 넣고 돌리면서 파두 씨 40알을 일차로 태워서 그 연기를 (차고(茶膏)에)훈증하여 말린다. (이를)가루를 내어 매번 한 스푼 복용하고, 별도로 좋은 차 가루를 넣어 식후에 다려 마시면 효과가 있다(療治方 氣虛頭痛 用上春茶末 調成膏 置瓦盞內覆轉 以巴豆四十粒 作一次燒 煙燻之 曬乾乳細 每服一匙 別入好茶末 食後煎服 立效)



차 꽃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핀다. 노란 꽃술, 빙설같은 꽃판, 분방한 향기가 난다. 늦가을에 피는 꽃 중에 백미라 할 수 있다.

'본초강목'에 "상기된 기운 내려" 장점 기술
설사, 두통 등 효과… 현대인에도 활용 가능

윗글에 의하면, 기가 허약해졌을 때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른 봄에 만든 좋은 차를 가루로 만든 후 (물로) 개어 고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고를 질그릇이나 토기(土器)에 넣고 뒤집어 돌리면서 파두 씨 40알을 태운 연기로 훈증한 다음 (차고를) 말린다. 이렇게 만든 차를 가루로 만들어 매번 한 스푼씩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 별도로 좋은 차를 넣어 식후에 다려 마시면 효과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특히 파두씨를 태워 그 연기에 차고를 훈증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설사를 치료하는 법과 소변이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차와 생깨를 활용하는 방법도 〈군방보(群芳譜)〉 '뇨치방(療治方)'에 다음과 같이 언급해 두었다.

붉고 흰 설사에는 좋은 차 한 근을 구운 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진하게 다려 한두 잔을 마시면 오래된 설사에도 좋다. 또 소변과 대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은 때 좋은 차와 생 깨 한 줌을 잘 씹어 먹으면 소변과 대변이 잘 내려간다. 여러 차례 차와 생 깨를 씹어 먹으면 효과가 나는데, 차와 생깨가 모두 씹히지 않았는데도 대소변이 잘 내려간다. (又赤白痢下 以好茶一斤 炙搗爲末 濃煎一二盞服 久痢亦宜 又二便不通 好茶生芝蘇各一撮 細嚼 滾水沖下即通 屢試入效 如嚼不及擂爛 滾水送下)

그가 언급한 설사에 유용한 차의 활용법은 차를 구워 쌓아서 가루를 만들어 진하게 다려 한두 잔 마시라는 처방이다. 이때 차의 온도는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차가 이뇨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혹자는 차를 마시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이 꺼려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차는 설사가 날 때 진하게 다려 마시면 효과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차를 구워 가루차를 만들어 사용한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차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있다.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은 이후 차 문화가 쇠락했던 시기에 차가 나던 산지에서는 늦게 딴 차를 그늘에 말렸다가 돌배와 생강, 혹은 귤피 등을 섞어 감기와 이질을 치료하는 단방약으로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조선 후기 이운해(1710~?)의 〈부풍향다보〉는 상차 7종을 만들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문헌은 175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원본이 발굴되지 않았다가 황윤석(1729~1791)의 〈이재난고〉에 수록된 〈부풍향다보〉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약차를 다리는 도구와 풍로, 물의 양 등을 제시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활용법이 드러난 사례라 하겠다.

그럼 〈부풍향다보〉에서 병을 치료하는데 요긴한 7종 상차를 만들어, 풍과 추울 때, 더울 때, 열이 날 때, 감기, 기침, 체했을 때 등 7가지 이상 병의 증세가 있을 때 이를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7종의 상차는 차와 다른 약재를 혼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그 대략을 살펴보면 △첫째 풍을 맞았을 때는 감국, 창이자(風 甘菊 蒼耳子)를 넣어 국향차(菊香茶)을 만들고, △둘째 추울 때는 계피, 회향(寒 桂皮茴香)을 넣어 계향차(桂香茶)만든다. △셋째 더울 때 백목단, 오매 (暑 白檀香 烏梅)으로 매향차(梅香茶)를 만들고, △넷째 열날 때는 황련, 용뇌(熱 黃連 龍腦)로 연향차(連香茶)를 △다섯째, 감기에는 향유, 곽향(感 香 藿香)으로 유향차(薷香茶)를 △여섯째 기침에는 상백피, 귤피(嗽 桑白皮 橘皮)로 귤향차(橘香茶)를 △일곱째 체했을 때 자단향, 산사육(滯 紫檀香·山査肉)으로 사향차(査香茶)를 만든다고 하였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㊹

1. 삼학(三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공부이다.
② 계학은 악업을 막고 선업을 실천하는 행동규범이다.
③ 정학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삼매에 드는 공부이다.
④ 수학은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수하는 공부이다.
⑤ 혜학은 존재와 세계에 대한 바른 통찰이며, 무상과 고, 무아의 통찰을 강조한다.

해설 : 삼학은 계학, 정학, 혜학을 말한다. 계학은 계율 등의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규율을 따르는 것, 정학은 계율수지로 삶이 차분해진 상황에서 선정, 삼매 등을 닦는 것, 혜학은 선정, 삼매 속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혜학은 다시 문혜, 사혜, 수혜로 나아가게 되며 문혜는 부처님의 법을 익히는 단계, 사혜는 부처님의 법을 사유하는 단계, 수혜는 부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닦는 단계로 삼학과 삼혜는 불교수행의 기초이다. ①, ②, ③, ⑤의 설명을 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명상이나 삼매 등은 부정적인 심리요소(심소)를 멀리하고 긍정적인 심리요소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목석처럼 아무런 심리요소를 갖지 않는 무정물이 되는 것은 일반적 불교수행이 지향하는 점은 아니다.

2. 부처님은'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므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교설을 지칭하는 불교교리 용어는?

① 제법무아 ② 십이연기 ③ 열반적정 ④ 일체개고 ⑤ 제행무상

해설 : 제행무상이다. 순서대로 ①, ③, ④, ⑤는 사법인으로 불교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며 사법인이라고 한다. 제법무아는 어떤 단일한 요소도 '나'라고 할 수 없음, 즉 '나'라는 것은 단일한 법으로서 실재가 아님이며, 열반적정은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고요함으로 열반을 설명하는 것이고, 일체개고는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다. 십이연기는 십이지연기라고 하며 이 연기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고통의 연속으로 이끌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십이연기 문제가 정확히 나올 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제법무아(諸法無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②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다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③ 모든 것은 변하므로 현재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④ 어떤 경우든 집착과 분별심을 떠나 자기를 비우고 살아야 한다.
⑤ 불교의 공(空)사상은 무아(無我), 연기(緣起)를 확대한 개념이다.

해설 : 전반적으로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개고의 내용이 섞인 보기들이다. 이는 이 두 개념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현재의 삶은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해야 하는 것이며, 자유롭다는 것도 방종이 아니라 번뇌, 고뇌 등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4. 사법인(四法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모든 변하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②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고 끝없이 변한다.
③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라 몸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④ 모든 것이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기에 고통이 발생한다.
⑤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해설 :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열반적정은 모두 자기 자신의 무명과 무명이 다함만이 관련있음으로 신의 개입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

5. 사법인(四法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② 제법무아(諸法無我)
③ 십이연기(十二緣起)
④ 일체개고(一切皆苦)
⑤ 열반적정(涅槃寂靜)

해설 : 십이연기하는 것은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현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자아의식 및 탐, 진, 치를 더함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일체개고라고 한다. 이 십이연기에 대해서 순관-역관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연기하는 존재에 대하여 자아의식이나 탐, 진, 치를 더하지 않게 됨으로 불이 꺼지듯 고요한 상태, 즉 열반에 이르게 된다. 사성제의 이해, 십이연기의 이해 등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설명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세세한 부분의 차이보다는 큰 틀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답 : 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가을 별식 – 혜성 스님의 '고구마 빼떼기죽'

▶한줄 요약
말린 고구마 빼떼기가 쫀득하게 살아나고, 팥과 콩, 차조 등의 잡곡이 입안에서 고소하게 부서지는 때. 그리고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까지 뭉근하게, 오래 끓여주어야 제맛이 우러나온다.



가을볕 말린 '빼떼기' 한 입에 담긴 구수함

〈말린 고구마〉

□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음식은?
□ 기억나는 어머니의 그릇이 있습니까.
□ 내가 대접받은 최고의 식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손님을 초대하여 혼자 음식을 준비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 사찰음식을 왜 배우고 싶은가요?

이것은 무슨 질문일까?

심리테스트 같기도, 정신 상담을 위한 사전 질의 같기도 하다.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어느 미스터리한 식당에 초대된 특별 손님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 '음식'과 관련되었다는 것. 도무지 용도를 짐작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한 사찰음식 강의 신청서의 일부분이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행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교차한다. 나와 자연, 온 우주가 맞닿아 만들어 내는 역사가 매일의 밥상 위에서 쓰인다. 그 요동치는 힘을 세상에 전하는 수행자, 혜성 스님을 만났다.

사찰음식으로 전하는 세계

부산광역시, 그 안에 자리한 작은 섬 을숙도. 저 강원도 태백 함백산에서 발원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흘러내린 강줄기는 이곳 낙동강 하류에서 잠시 가쁜 숨을 고른다.

모든 강은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직전, 내달리던 제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느려진 유속을 틈타 모래와 흙, 제 속에 품었던 온갖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켜켜이 쌓인 퇴적물은 다시 비옥한 땅이 되고, 숲이 되며, 끝내 뭇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우주 그 자체가 된다.

을숙도는 그렇게 탄생한 섬. 지금도 매년 11월이면 시베리아에서 돌아오는 수천의 철새들에게 이 작은 섬은 먼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고귀한 고향의 땅이다.

혜성 스님을 만난 곳은 을숙도 생태공원을 마주한 여래정사(부산시 명지동). 도심 속의 수행도량인 이곳에서 혜성 스님은 '마음치유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또 연간 진행되는 사찰음식 강사로 함께 한다.

"사찰음식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지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작은 부엌은 보글보글 끓는 빼떼기 죽의 구수한 내음으로 가득찬다.

신청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수강생을 선정하지요. 사찰음식의 정신에 공감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또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맛있고, 화려한 음식은 요리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음식은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 저 미스터리한 질문의 작성자는 바로 혜성 스님. 이 시대의 소모적인 음식 문화와 절대적으로 대치되는 사찰음식의 세계. 그 세계의 문을 열기 전, 스님은 사람들에게 되묻는다. 당신의 삶, 다가올 미래를 바꿀 준비가 되었느냐고.

마음으로, 지혜로

"아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이제는 깨지고 사라져 버린 그릇의 기억조차 저마다의 마음속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충족이 되면 몸의 병이 낫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찰음식의 힘은 그것에 있습니다."

마음과 음식의 연결고리. 흔히 들어 봄 직한 이야기지만 혜성 스님의 고민은 그만한 배경을 지닌다. 1분을 하루처럼 쓰고, 십 년이 하루처럼 흘러간 세월이다. 출가 후 치열했던 공부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또 사찰음식을 배우고 가르치며 동분서주한 수십 년의 시간. 그 결과 오롯이 남겨진 스님만의 교육 방식을 현장에서 실현 중인 셈이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학위를 받은 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안됐어요. 대학원도 겨우 다닐 때였으니까요. 대신 템플스테이 소임을 맡은 터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성 스님의 고구마 빼떼기 죽

재료 | 말린 고구마 500g, 강낭콩(홍대) 1/2컵, 팥 1/2컵, 차조 1/2컵, 물
만드는 법 | ① 1. 팥은 씻어서 물을 넣고 한번 끓인 후, 윗물을 따라 내고 다시 물을 부어 물러질 때까지 삶는다. ② 강낭콩도 3시간 정도 불린 후 무르지 않게 삶아 둔다. ③ 고구마 빼떼기와 팥, 강낭콩을 큰 냄비에 넣고 물을 내용물의 3배 정도 넣고 끓인다. ④ 어느 정도 끓으면 씻어서 물기를 뺀 차조를 넣고 모든 재료가 어우러질 때까지 끓여준다.

불교 명상심리학을 연구한 1세대 스님들의 곁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지요. 매달 수많은 설문 자료를 정리해 서울로 보내면서요. 낮에는 소임을, 밤에는 공부하며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입니다(웃음)."

기존의 심리치료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내담자의 경제적 어려움, 또 재발의 확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치유의 원리를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스님의 이런 고민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나와 가족, 환경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인과 관계를 깨닫고, 재료의 약성을 살린 사찰음식의 지혜가 더해진다면 그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이 담긴 음식

가을, 우주가 허락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다. 오늘 혜성 스님이 준비한 고구마 빼떼기죽은 우리네 귀한 농작물이 오롯이 담긴 전통의 먹을거리.

고구마를 생으로 얇게 썰어 가을볕에 말린 빼떼기는 먹을 것이 궁하던 시절, 간식으로 또 식재료로 두루 쓰이던 기특한 구황식품이었다.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하면 스님들이 고구마를 썰어 마루에서 말려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말리면 한지에 곱게 싸서 장독대에 보관을 했어요. 큰스님들이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상에 올리고, 힘든 대중 울력을 하고 나면 죽을 쑤어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요." 출가와 함께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지리산 대원사에서의 기억, 지금도 생생한 가을의 풍경이다.

스님의 작은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빼떼기 죽의 구수한 내음이 진동한다. 말린 고구마 빼떼기가 쫀득하게 살아나고, 팥과 콩, 차조 등의 잡곡이 입안에서 고소하게 부서지는 때. 그리고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까지 뭉근하게, 오래 끓여주어야 제맛이 우러나온다.

넉넉하게 담은 고구마 빼떼기 죽 한 그릇. 손으로 들기 어려울 만큼 뜨끈한 사발의 온기도 이 맛의 일부다. 소금과 설탕을 취향대로 넣고 후후 불어 입에 넣는 순간, 죽 전체에 퍼진 은근한 달콤함과 푹 익은 잡곡의 구수함이 입으로, 아니 온 마음으로 퍼져 나간다.

"고구마 빼떼기 죽은 차갑게 먹으면 달콤함이 더 진해져요. 꼭 팥빙수처럼요. 겨울에 빼떼기 죽을 장독대 위에 올려두면 살얼음이 생기지요. 그때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별식이 됩니다. 구황식품은 어려운 시절 생명을 살린 음식이니, 심신이 허한 날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쉬어가는 계절

여름에는 용맹정진에 들어선 스님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상추전을, 겨울에는 지리산의 약초들을 삶아 내린 물로 약성 풍부한 식혜를 담아 수행의 피로를 풀어주던 산사의 지혜. 지리산 대원사에서 지낸 모든 계절마다 만날 수 있었던 풍경이다.

이 땅의 수행자들과 궤를 같이하며 쌓인 그 오랜 지혜에서 혜성 스님은 사찰음식의 미래를 본다.

"그저 철마다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것만이 사찰음식 교육은 아닙니다. 사찰음식의 약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 지혜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사상인 자비와 공생의 가르침을 사찰음식 교육을 통해 전할 때,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진정한 방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수십 년간의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본 지 이제 4년. 잠시 쉬어가는 이 계절에도 스님의 꿈은 여전히 갈무리 중이다. 앞만 보고 달리던 저 강물이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전 스스로 느려지듯, 제 몸을 가벼이 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듯이.

〈작가〉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그냥 던지고 빼버리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데 모여 앉았다가도 일어서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헤어졌다 또 모이고 모였다 헤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리가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예전에 강태공은 곧은 낚시를 넣고 앉아 있으면서 영계를 다스릴 때에 명령을 해서 다스렸다 합니다. 노자는 영계를 다스릴 때에 영원한 나의 친구로서 나와 둘 아니게 다스렸다 합니다. 또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고 영계를 다스렸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다스린 것이 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들 안 하시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 하고 물리가 다 터지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내가 그대로 여여하게 닥치는 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해 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내가 그렇게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서야 그 모든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야, 명령해서 쓰는 게 옳으냐, 영원한 친구로서 나와 둘이 아니게 쓰는 게 옳으냐, 촛불을 켜 놓고 쓰는 게 옳으냐' 했을 때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 놓고 썼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또 켜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조금 더 있다가 갈 것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 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물질로써는 절대로 거기에 눈을 뜨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나의 내면세계의 그 모두를 알고서야, 파악하고서야 이해가 가고 또 가늠하고 또 깨닫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뿌리 말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은 낚시를 넣고 아무리 있어 봐라. 네가 명령해서 한다면 말하자면 군사를 모을 때에 분산되기가 쉽고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백천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노자는 부처님의 뜻을 그만큼 그래도 둘이 아니게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깨 한 알갱이를 심는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시간을 두어야 하고 또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식이란 것은 찰나찰나 바뀌어서 화할 수가 있으니 한 찰나에 한 생각이, 그 한 생각이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법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즉 물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 적게 잡아도 십일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리까마는, 십일억이 넘지만 십일억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만약에 그 십일억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깨알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없이 수만 개가 됐다가, 아니, 억겁에 이 세상 대천세계를 꽉 덮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면 십일억 중에 말입니다, 그 많은 것이 다 벌떼 일어나듯 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도 하나가 일어났다 하면은 수십 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막는 놈은 적고 일어나는 놈은, 해하게 하는 놈은 많아진다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좀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키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만약에 빨갛게 생각을 했다 하면은 이건 전체가 빨개집니다. 노랗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노래지는 것이고, 악으로 나오는 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 때는 전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세계의 그 살림살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바깥의 외부의 살림살이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묶어 놓지도 않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할 때 '고'라는 문제가 제일 첫 번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악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고, 선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거든지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본래자성불에서, 본래자성불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가하니, 마치 맷돌처럼 물건만 넣으면 저절로 갈아져 나오고 맷돌이 이탈을 안 하고 잘 돌아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맷돌과 같으니깐요. 심봉을 꽂지 않은 맷돌은 이탈을 하게 되고 물건이 잘 갈려 나오질 않아서 사는 데 복잡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도 갈 수 있고 또는 화목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넓게 보지도 못하며 또 그렇게 좁아서 자기 살기도 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감지를 못 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먹어 보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 마당에서 꼭 부처님 공부다 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으니까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먼저 탐구해서 먼저 깨달아서 평생을 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열쇠고리라면, 거기 주렁주렁 달린 그 열쇠를 불성이라 한다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을 하지 말라

☞ 19면에서 계속

면 여러분 속에는 십일억의 불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불성이 하나냐 둘이냐.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늘리면 백천 개로 몇만 개로 될 수도 있고 또 줄이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내 공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바로 '공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휴, 참 세월은 무상해." 이렇게 말씀들 잘하시죠? 무상하다고요.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을?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항상 고정됨이 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그냥 던지고 빼 버린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계도하고 올바르게 선정도 베풀고 올바르게 물리가 터져서 여러분과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이 물질이라는 거는 그저 없어졌다 생겼다가, 부서지고 또 썩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온통 이 야단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니 무상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허무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일체 만 가지 생활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저 태양은 그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또는 산하대지는 만물만생을 길러 낸다. 천지가 둘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 애들을 기르는 데는.

깊은 물 돌고 돌아
수증 되어 오르고 내리면서
만물만생과 더불어
산천초목도 두루 적신다

저 둥근 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밝게 비추어 주니
스스로 여여하고
스스로 그대로 실상인 것을!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아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자체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의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으로 나오고 선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마음이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다.' 하고 거기 맡겨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진이 돼야 됩니다. 무슨 화두를 갖는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껍데기에 또 껍데기를 씌우는 거나 한가지니까, 지금 이 밝은 세상에는, 문화 문명이 꽃피고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저 직접 나를 화두로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말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나무 꼭대기 천야만야한 데로 올라가서 나뭇잎을 입에다 물고선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와서 길을 물었답니다. 그러니 말을 하자니 입을 열면 땅바닥으로 그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져서 죽을 거고, 입을 안 떼자니 참 이거 미안하고 배신하는 거 같아서 이건 안 뗄 수도 없고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을 안 떼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이렇게 낚시를 던져서 채찍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묵비권이군요, 허허허. 아주 모두 도인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지 뭡니까, 하하하. 하여튼 좋습니다.

예전에 경허 스님은 말입니다, 첫째, 사계절을 무조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사셨다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둘째, 경허 스님은 수염이 나지 않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세 번째, 경허 스님은 상투를 틀어서 동곳을 꽂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없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면 말도 한 사이가 없고 방귀 뀌는 거와 같을 텐데…. 항의가 없습니까? 역시 도인들이셔. 허허허. 아무리 도인들이라도 그 이치를 알고 몰라야지, 이치를 모르고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거죠.

높은 산 누리에 하얀 눈 덮이고
가지마다 배꽃 피어 만발했는데
골짝마다 칡뿌리는 넝쿨지어 뻗어 나가고
서리 위에 칡꽃 피어 만발하였으니
그윽한 향내는 두루 하는구나
경허 선사 앞뒤 없는 대피리 소리
온 누리를 덮고 굴리니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고 나며 나투셨노라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깝게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후렴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소리지만 또 한마디 할까요? 끝났으면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라고, 지수화풍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 배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이 자기 생명이지 딴 생명들이 아냐. 자기는 뭉쳐 놓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자기라고. 나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불성이 있어요.

그 불성은 몇 개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아마 대충 헤아린다면 그 불성이 십일억이나 그쯤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한데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불성이 하나요, 또는 흩어지면 불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불성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부처라고 했고 그것은 '무(無)'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좇아나왔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나온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그것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몸을 빌려서 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짊어지고 나왔느냐고 하시겠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던 거니까 걸머지고 나와 가지고서 입력이 돼 있는 게 솔솔 지금 현재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십일억가량이나 되는 그 의식에서 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아상이 있어서 죄를 짓고, 무기력해서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불순해서 죄를 짓고, 그저 평등하게 생각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지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 의식들이 차원에 따라서 전부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듯이 그냥, 금은 금방에 모이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러니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고 볼 수밖에. 전부 입력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 팔자 운명을 어디 가서 한탄을 하겠나. 자기 탓이지. 모든 게 잘했든 못했든 자기 탓이라. 그래서 악과 선도 놔라. 그걸 놓지 않는다면 악으로 간다면 선이 따르고 선으로 간다면 악이 따르니 악과 선도 놔라. 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진다. 입력이 됐던 것이 다 없어지면 홀연히 자기는 밝아질 거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또 뒤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 하나 구조가 모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가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친구야!' 하고 거기다 돌려놓죠. 허허, 영원한 친구거든.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는 둘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거든. 자기와 자기가 어떻게 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봉과 맷돌이 둘일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넣고 갈아내는 것도 둘이 아니거늘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거기다 맡겨 놓고,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되게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안 되게 한 것도 너니까.' 하고 맡겨 놓고, 또 남으로 인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채찍질해 주는 거지, 나는 경험을 얻고 그랬으니 그 많은 돈을 버렸어도 아깝지 않다 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놔라 이겁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너 때문에 나는 살고 너 때문에 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을 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요, 착이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간다면, 내 탓으로만 돌리고 나만 없다면 고정된 게 하나나 있나? 그러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했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 그놈들이 지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움죽거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돌리는 대로 화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현도 부처요, 문수도 부처다. 왜? 한마음 속에서 나오니까. 한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문수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어찌 그것이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따지겠느냐.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이 생각 안 할 때는 부처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움죽거렸을 때는 바로 활용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깝게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1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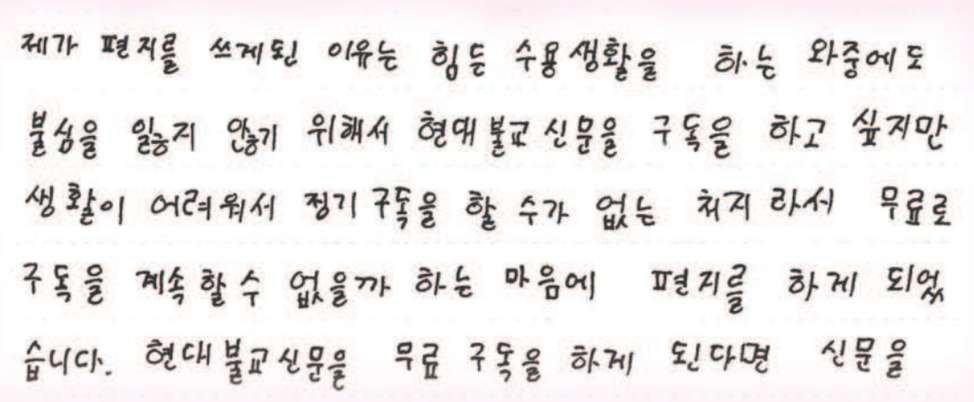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㉒ 너를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길

울타리 사라지면 온 우주가 '나'

지난 주에 법당을 처음 찾은 20대 청년분들과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소구점과 눈높이에 맞추어 공간에 대한 이름을 지어보았다. 20대들의 힙한 놀이터 '템플스카!'. 스카는 '스터디카페'의 줄임말이다. 부처님 계신 공간에서 예불도 모시고 공양도 하고 책도 보고 글도 쓰며 편안한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스물다섯 살의 청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비단 이 청년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일과 사업,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고 말할 때, 공통분모인 '나'에 대해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나의 일과 사업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칫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혹은 성공한 누군가의 말에 따라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열심히 노력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지속력이 떨어지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게 된다. 거기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원망까지 하게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살려지는 존재'라고 알려주신다. 목숨이 호흡지간에 달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숨을 들이쉰 후에 내쉬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쉰 후에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다면 우리의 육신 활동은 정지된다. 숨이 막히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내 몸을 돌고 나가고, 태양의 빛이 없다면 캄캄한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햇빛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고 안온함을 느낀다.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공기와 햇빛만으로도 온 우주가 나를 살려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무한한 살려짐의 은혜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나인데, 이 사실을 간과하니 스스로를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 착각한다. 부처님께서는 깨치신 후에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부족감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보자. 어떤 능력을 더 갖추든 못 갖추든 우리의 참생명은 이대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력을 드러냄에 있어 나의 개성과 인연에 맞게 배우고 익혀, 아직 발현되지 못한 참생명의 능력을 꺼내쓰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렇게 관점

나와 너가 연결됨을 깨달으면
삶의 방향 놓치지 않게 될 것

을 바꾸게 되면 설령 진척이 더디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남과의 비교심에 힘들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뭇생명의 이익을 위해 사는 보살은 'for me(나를 위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for you(너를 위함)'에 초점을 둔다. 너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너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나이다.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얽힌 그물망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물코 하나를 잡아 올리면 그물망이 다 딸려오듯이, 하나의 그물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따로 나뉠 수 없는 그물망 전체인 것이다.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며, 우리는 동시적 존재이고 연기적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너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되려면 나만의 만족이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남이 동시에 이롭고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나와 네가 따로가 아니기에 너만을 위해 내가 희생되어서도, 나만을 위해 네가 희생되어서도 조화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Win Win(윈윈)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다. 사업을 하더라도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이롭고 편안할 수 있을까를 앞에 두어보자. 나를 위한 수단으로 너[고객]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다 보니, 나의 이익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원리로 임해보자.

대표법사이신 여여법사님께서는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법문을 늘 강조하신다. 어떤 원인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바라는 결과가 있다면 원인에 집중하여 부지런히 원인을 지어보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지으라는 말씀처럼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니 미리 포기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인지,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나를 중심으로 한 틀 속에서 남과의 경계와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울타리가 사라지면 온 우주는 곧 내가 된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너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네 덕분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온라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㉘ 영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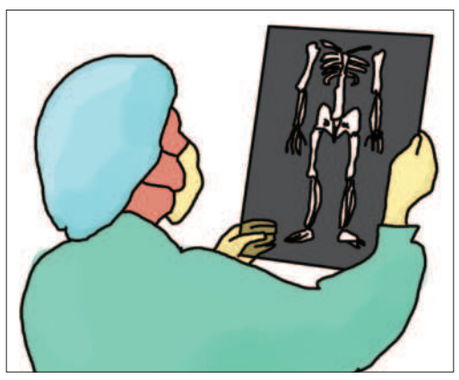
뼛속 질병 찾는 영상 검사, 뭐가 있을까?

정형외과를 처음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촬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되지만 환자가 많거나 바쁠 때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상 촬영 먼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외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바쁘게 진료를 보는 점에 대해 항상 환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지면을 빌려 영상 검사의 종류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엑스레이 촬영(X-ray, 일반 방사선 촬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정형외과에 처음 오시면 대부분 찍는 기본적인 뼈 검사입니다. 뼈의 문제 여부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다쳐서 병원에 방문할 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먼저 골절이나 탈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로 인한 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뼈의 전체적인 정렬(예를 들면 오다리, 엑스다리, 척추측만증, 거북목 등)을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뼈 이외의 구조를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세 골절이나 뼈가 많은 구조에서 뼈가 겹치면 골절이 있더라도 확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CT 촬영)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 자체는 뼈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주로 골절이 진단되면 뼈의 골절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절의 전위 정도, 골편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 등으로 뼈 수술이 잡히면 뼈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촬영을 합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골절이 의심되나 엑스레이 촬영에서 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 해당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는 병변이 없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골절을 발견하는 때도 흔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공명영상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 대체제로써도 촬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단층촬영 역시 뼈 이외의 연부조직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며, 방사선 조사가 엑스레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영상 검사마다 장단점 달라

초음파 검사(US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뼈 이외의 연부 조직(주로 인대, 힘줄, 근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합니다. 검사가 간편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외래에서 큰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어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조직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이외의 검사는 모두 정적인 상태에서 촬영돼 위치 관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 수 없지만 초음파 검사는 가능합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해 주사를 놓으면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어 치료 효과도 좋으며, 바늘로 조직을 여러 번 찌르지 않아 통증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없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깊은 구조물은 확인이 힘듭니다. 또한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뼛속이나 관절 내부의 구조물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촬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연부조직 및 뼈 모두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주로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혈관 등의 연부 조직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합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고, 깊은 구조물, 뼛속, 관절 내부 모두를 볼 수 있어 검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좁은 공간에 있어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찍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제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기도 합니다. 고가의 장비로 오랜 시간 촬영하기에 검사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인공 심박동기나 인슐린펌프 등 기구가 몸속에 있으면 촬영이 불가합니다. 이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속이 자기공명영상 촬영 기계 근처로 접근하면 자석에 쇠가 붙듯이 딸려 들어가게 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영상 기술(AI 기술)**이 도입돼 촬영 시간은 줄이고 영상 화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전법 일기

고입대입 백일 정진 통해 마음 변화를 이끌어내다

고입·대입 100일 정진이 8월 7일 입재식을 한 후 11월 12일 회향을 했다. 정진하기 전에 청소를 하며 수험생들이 마음의 쓰레기를 씻어내고 목적지까지 지혜롭게 운전해 가기를 발원하게 되었다.

이번 정진에는 노보살들과 젊은 보살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 노보살들은 젊은 보살들의 신발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돌려 놓아주는 세심함도 보였다.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젊은 보살은 '이 마음을 나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족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난청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께서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메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단톡방에 법회 포스팅을 부탁드렸다. 그것은 여건상 참가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은 어려우나 같이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신도는 이런 심부름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욱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강해서 가족 인연에 대한 벽이 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진하면서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서로에 대한 앙금이 녹아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공부에 뜻이 없다가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공부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셨던 신도도 있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정진을 통해서 '아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아들을 대할 때도 조바심이 없어지고 놓는 작업을 하며 행복합니다."

한 신도는 수험생이 둘인데 수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근본에서 나온 거다'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시험 잘 못 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면 예전에 같으면 '못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불안하게 했을 텐데 아이 입장에 서서 피드백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간호와 수험생 뒷바라지를 겸하셨던 신도도 계셨다. "가족들이 제 몫을 톡톡히 맡아주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크게 바라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고 빡빡하게 퍼즐처럼 끼워넣으려고 했으면 아마 튀어나갔을 텐데요. 내려놓는 마음, '주인공의 한자리에 넣자'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얘기하게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처럼 진실되며 발전된 정진 내용을 공유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모두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정진은 수능을 마친 후 수험생들과 조부모,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더욱 환하게 꽃이 필 것이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⑩ 시, 빛이 되는 산책

詩, 삶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

오늘은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창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저마다 다른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창의성이 서로 거리가 먼 것을 연결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틱낫한 스님의 문장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그대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는 이 종이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구름이 있다. 이 종이의 존재는 구름의 존재에 달려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도 종이에서 구름이 보이시나요?

'종이'와 '구름'이라는 서로 거리가 먼 사물들이, 그 사이에 '비'와 '나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힘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 쓰기'야말로 창의성을 키워주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시는 A와 B 사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를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징검다리는 거리가 너무 멀면 건널 수 없고, 또 너무 가까우면 시시해서 재미가 사라집니다. 어떤 돌을, 어떤 간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놓아가느냐가 바로 상상력이고 설득력입니다. 거기에서 지은이만의 고유한 사연과 스토리텔링이 드러납니다. 창의성뿐만 아니라 뜻밖에 치유의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학서 시는 '창의성의 꽃'
나와 세계를 하나로 연결
자기 성찰로 주인된 삶을

반면에 소설은 갈등과 대립,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게 끔 합니다. 평론은 작품에서 받은 감동의 이유를 찾아 제시하고, 수필은 시와 소설과 달리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형상화를 통해 에둘러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시는 창의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음악과 수학처럼 패턴의 과학입니다. A와 B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고유한 패턴이 생기고, 그동안 이름이 없어 호명되지 못했던 패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은 새로움과 색다름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변신합니다. 시와 음악과 수학이 과학이자 예술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는 삶을 예술로 만드는 한 방법입니다. 사물 A와 사물 B를 연결하듯, 나와 사물, 나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학원수업과 숙제에 치여 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길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로, 글로 쓰는 것은 삶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일입니다. 비록 시를 이야기했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음미할 때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삶은 빛이 되는 산책이 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불교 첫 인상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처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근한 소통창구다. 그곳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님과 법담을 나누며 불교의 가르침에 자연히 다가서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불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

최근 무종교인 지인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템플스테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인기의 비결이 궁금했단다. 그런데 결론은 "다신 안 가고 싶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스님께 진솔하고 따뜻한 지혜를 얻고 싶어 마음 깊숙이 쌓여 있던 고민을 어렵게 꺼냈는데, 예상과 달리 장난스럽고 무례한 답변이 돌아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불교가 싫어졌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당시 느꼈던 실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불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템플스테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진정성 있는 가르침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과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의 역할이다.

스님마다 개개인의 해석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개별적 차이가 불교 초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도법사 스님들이 초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선에서 불교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현대 사회와 대중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요구된다.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사찰 체험이 아니다. 불교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자, 억겁의 인연으로 만난 시작점일지 모른다. 방문자들이 불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교수익사업은 '正命사업'이어야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 종단의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와 CJ그룹의 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사찰식 팥죽'을 개발해 출시했기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평소에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필자가 종단수익사업의 연구에 동참을 해왔기에 담당자가 배려를 해 준 것 같다. '사찰식 팥죽'은 팥, 수수, 현미, 차좁쌀, 찰보리쌀 등 곡물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으며 무엇보다 달지 않고 담백한 건강식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현재 이외에도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꽈리고추 식물성 장조림'과 '사찰식 왕교자'도 판매한다. '꽈리고추 식물성 장조림'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콩고기 장조림이고, '사찰식 왕교자'는 고기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야채만두다.

한국불교는 기도금과 보시금 등의 종교적 수익에 의해서만은 종단과 사찰의 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에 판매와 임대 등의 세속적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의 사찰식 음식판매는 종단 수익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서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이 '정명적(正命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팔정도의 정명은 불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목적과 수단이 불교적이어야 한다.

불교 윤리·도덕적 사업들 추구
소비자, 직원 등 이익 바탕돼야
살생 없는 비폭력 사업도 필요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이 정명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사회적, 비폭력적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이란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더라도 정직하고 도덕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윤리적 경영을 의미한다. 정직한 광고와 친환경적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이란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수익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폭력적이란 생명을 해치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 불살생적 사업을 의미한다. 농사를 짓더라도 살충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짓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불교가 수익사업을 정명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해 관계자의 행복, 정직한 마케팅,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과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사찰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정명적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사업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보다 더 정명한 사업이 될 것이다. 만일 한국불교의 종단과 사찰이 이윤이 남는다고 불교적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비정명적으로 한다면, '부처님 팔아서 장사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삐뚤어진 욕망과 한국사회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뜨거운 대기로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사회 곳곳에서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불쾌지수를 높였다. 그런 와중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2020년부터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2024년 8월 말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 목소리, 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진짜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왜곡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처럼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종의 디지털 둔갑술이라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의 악마 같은 모습에 경악을 멈출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신기술의 현란함과 성범죄라는

'지인 능욕' 목표 딥페이크 범죄
아는 이마저 혐오 대상화 '충격'
자타불이 불교 세계관 일깨워야

말초적 욕망 너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더 선명해진다.

이 사건에 한정한다면 가장 짙은 어둠은 직간접적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이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향해 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생존'을 호소하는 이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해야 할까?

또 다른 그림자는 급락하는 교육의 위상이다. 교육은 사람다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사회를 통합하고 세대를 넘어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이다. 그 주체와 공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린 참담함을 어떻게 떨쳐야 할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혹은 그런 영상이 유포되던 디지털 공간의 명칭에 사용된 '지인 능욕'이라는 말은 이제껏 보이지 않던 어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거세진 세계 각국의 극우적 움직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났다. 이 차별과 배제가 약자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서로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호명된 것이 '혐오'이다.

이제 사람들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내비친다. 그런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지인'으로 구체화 되었고, 능욕의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모자라 내가 아는 이를 짓밟고 싶은 욕망이 차오르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자타불이의 연기적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짓임을 모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허망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社 說

온라인 수행 챌린지, 잘 정착되려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수행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미래본부가 추진하는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이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하루 5분 선명상'의 실천방안으로 미래본부가 제작한 '선명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하루 5분 선명상을 접한 캠페인 동참자들의 호응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안거를 맞아 이뤄지는 온라인 수행 챌린지들도 눈길을 끈다. 조계사 청년회는 동안거를 맞아 11월 15일부터 '조계사청년회 아침명상 시즌3'를 진행 중으로 30명의 청년 불자가 매일 아침을 명상으로 열고 있다. 불광미디어도 11월 15일 네이버 밴드에서 '동안거 사경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같은 온라인 수행 챌린지의 확산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느슨한 연대'라는 라이프 트렌드와 연계된다. 시간과 장소, 관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느슨한 연대감을 추구하는 온라인 수행 챌린지는 열린 종교를 표방하는 불교에게 맞는 신행 트렌드이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과 챌린지 놀이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성맞춤형 포교 방법이다.

온라인 수행 챌린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늘 그랬듯이 종단과 일선 사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태동한 온라인 수행 챌린지 문화가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

국보 '지광국사탑' 복원 회향에 부쳐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 113년 만에 본래 자리에서 제 모습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에서 복원 기념식을 열고 지광국사탑이 제 모습을 찾은 의미를 되새겼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팔려나가 일본과 한국을 오갔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경복궁의 장식재로 활용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전쟁 이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및 환지본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불교의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기에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품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유산들의 제자리 찾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산 보원사지 철불,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광국사탑 환지본처를 계기로 이들 성보문화유산의 환지본처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대산스님 24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삼론종은 11월 11일 종정 혜승 스님을 모시고 충주 대산정사에서 중흥조 대산스님 열반 24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u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